

핸드북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2013. 10. 30(수) - 11. 8(금)
부산 벅스코(Bexco)

ISBN 978-2-8254-1634-1



핸드북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World Council
of Churches

핸드북

핸드북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World Council
of Churches**
Publications

핸드북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Copyright © 2013 World Council of Churches. All rights reserved.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있습니다. 국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저작물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publications@wcc-coe.org

WCC Publications는 WCC의 홍보출판국입니다.

WCC는 1948년 조직되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믿음, 증언, 봉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 교회연합기구인 WCC는 110개국에서 5억 6,00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을 대표하는 349개의 개신교 교단들과 정교회, 성공회 등을 통합합니다. 또한 로마가톨릭교회와도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Judith Rempel Smucker

ISBN: 978-2-8254-1634-1

World Council of Churches
150 route de Ferney, P.O. Box 2100
1211 Geneva 2, Switzerland
www.oikoumene.org

차례

제10차 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WCC 총무)	
총회에 관한 주요 정보	9
총회 의사일정	11
총회 전체 일정표 / 날짜별 일정표	
총회 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한 안내	33
총회 프로그램지침위원회 / 총회 정책검토위원회 / 총회 공공쟁점처리위원회 / 총회 재정위원회 / 총회 인선위원회 / 총회 메시지위원회	
영적 생활	50
마당 프로그램	52
주말 프로그램	54
유용한 한국어 표현	75

주요 전화번호

경찰	112
화재 및 응급상황	119
총회 비상연락처	+82 51 711 0042
BBB 자원봉사자 통역	+82 51 1588 5644
관광민원센터	+82 51 861 1101
부산관광안내서비스	+82 51 1330

총회에서의 생활

77

총회 운영팀 / 안내데스크 / 등록 / 이름표 / 벅스코 / 컨벤션 홀 / 예배실 / 마당 홀 / 비즈니스 홀 / 통역 장비 / 벅스코의 접근성 / 재활용과 환경보호 / 벅스코를 오가는 교통편 / 부산 직접 둘러보기 / 식사—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 / 의료지원 / 약국 / 안전 / 환전 / 인터넷 / 메시지 / 사진촬영 / 우체국 / 전화 / 여행 및 티켓 재확인 / 쇼핑 / 관광 / WCC 서점과 카페 / WCC 전시회 / WCC 커뮤니케이션 / WCC와 한국준비위원회 사무실 / WCC 재정사무실 / 언론과 미디어 / 목회상담과 연대 지원

총회 개최 장소

87

벅스코에서 제공되는 활동과 서비스 / 마당 홀 / 총회 사전 대회 / 성경공부 그룹 / 총회 위원회 / 에큐메니칼 좌담 / 교파별 회의 / 대륙별 회의 / 사무실

마당 워크숍

95

제10차 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 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CC 총회는 큰 비전을 품은 특별한 회의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회가 참여하여 오늘날의 세계에서 기독교적 일치, 선교, 정의와 평화의 문제를 탐구하는 매우 특별한 행사입니다. 제10차 총회는 에큐메니칼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책은 공식 참가자와 참석자에게 행사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핸드북』을 항상 지참하면 유익합니다.

『핸드북』은 마당 워크숍 프로그램을 비롯한 총회의 상세한 의제와 일정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총회 산하 모든 조직의 회의 장소와 세부 내용, 총회 개최 장소를 안내하는 지도, 질문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안내합니다. 또한 서울, 부산 인근,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교회, 에큐메니칼 협력단체, 그 이외 다른 교회에 총회를 개방하고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 WCC 중앙위원회가 총회를 준비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부산에서 한국교회와 함께 에큐메니칼 운동 단체가 함께함의 정신을 갖고 모일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만물이 생명, 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합의의 정신에 따라 오늘날 세계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총회의 성공은 각 개인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각자의 은사와 경험을 나누는데 달려 있습니다. 또한 총회가 성공하려면 공동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호 존중, 신중한 경청, 경건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여를 고대하며 부산 총회가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WCC 총무

총회에 관한 주요 정보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년 10월 30일-11월 8일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10월 28-29일 총회 사전 대회

- WCC 실행위원회 회의
- 여성과 남성 공동체를 위한 사전 대회
- 30세 이하 참가자를 위한 청년 사전 대회
- 에큐메니칼 장애인연대네트워크(EDAN) 사전 대회
- 원주민 대회
- 다양한 에큐메니칼 협력단체 회의

총회에는 누가 참가하는가?

- WCC의 345개 회원 교회—부산 총회에 회원 교회의 90%가 참석
- 800명 이상의 회원 교회 총대, 총대단 자문위원, 중앙위원회 퇴임위원
- 575명 이상의 에큐메니칼 협력단체와 기타 다른 교회의 대표자, 참관인, 방문객
- 1,000명 이상의 국제 총회 참가자(수백 명의 청년 포함)
- 1,000명 이상의 한국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 직원, 자원봉사자, 일일 참가자
- 3,000명 이상의 직원, 봉사자, 촉탁 직원, 통역자

참가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 7개 주제별 전체회의—개회, 주제, 아시아, 선교, 일치, 평화, 정의

- 21개 에큐메니칼 좌담—각 좌담별로 90분 회의를 4회 개최
- 6개 총회 위원회—메시지, 공공쟁점처리, 프로그램지침, 정책검토, 재정, 인선
- 21개 성경공부 모임—소그룹 내지 대집단
- 80개 이상의 워크숍—둘째 주에 매일 20개 이상 워크숍
- 100개 이상의 전시회 및 만남의 공간—모두 마당 홀에서 진행

영적 생활

- 모임예배 및 보냄예배
-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 한국교회 방문
-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주일예배

에큐메니칼 좌담과 위원회 업무를 비롯하여 총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기 바란다.

총회 웹사이트 <http://wcc2013.info/en>을 방문하면 총회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총회 의사일정

총회 전체 일정표

	수요일 10/30	목요일 10/31	금요일 11/1	토요일 11/2	일요일 11/3	월요일 11/4	화요일 11/5	수요일 11/6	목요일 11/7	금요일 11/8
08:3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09:00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09:15 10:15		휴식	휴식	휴식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0:15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10:45 12:15	모임예배	주제 회의	아시아 전체회의	아시아 전체회의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12:15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4:15 15:45	개회예배	회무처리 전체회의	회무처리 전체회의	회무처리 전체회의		회무처리 전체회의	회무처리 전체회의	회무처리 전체회의	회무처리 전체회의	회무처리 전체회의
15:4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6:15 17:45	출무 및 의장보고	에큐메니칼 좌담	에큐메니칼 좌담	에큐메니칼 좌담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17:4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8:15 19:45	회무처리 전체회의	대륙별 회의	대륙별 회의	대륙별 회의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20:00 20:30	저녁 기도	저녁 기도	저녁 기도	저녁 기도		저녁 기도	저녁 기도	저녁 기도	저녁 기도	저녁 기도
20:30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날짜별 일정표

10월 30일 수요일

09:00-10:15	오리엔테이션	미당 홀 방문	비즈니스 홀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모임예배		예배실
12:15-14:15	점심		센텀시티
14:15-15:45	개회예배		오디토리움
15:45-16:15	휴식		
16:15-17:45	총무 및 의장 보고		비즈니스 홀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화무처리 전체회의 -출석 확인 -정책검토위원회에 회부할 사안 -공공쟁점처리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부산 총회까지 보고 -총회 위원회에 대한 승인 -총회 지도부에 대한 승인		
20:00-20:30	저녁 기도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10월 31일 목요일

08:30-09:00	아침 기도	마당 홀 방문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91쪽을 보라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주제회의		오디토리움
12:15-14:00	점심		센텀시티
	떼제 공동체 기도모임(12:30-13:00)		예배실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4:15-15:45	회무처리 전체회의 -인선위원회 -공공쟁점처리위원회		비즈니스 홀
15:45-16:15	휴식		
16:15-17:45	에큐메니칼 좌담		92-93쪽을 보라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대륙별 회의		94쪽을 보라
20:00-20:30	저녁 기도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11월 1일 금요일

08:30-09:00	아침 기도	마당 홀 방문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91쪽을 보라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아시아지역 전체회의		오디토리움
12:15-14:00	점심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4:15-15:45	회무처리 전체회의 -인선위원회 -공공쟁점처리위원회 -일치성명서위원회		비즈니스 홀
15:45-16:15	휴식(커피와 차)		
16:15-17:45	에큐메니칼 좌담		92-93쪽을 보라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교파별 회의		93쪽을 보라
20:00-20:30	저녁 기도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11월 2일 토요일(부산)

08:30-09:00	아침 기도	예배실
09:00-09:15	부산: 벡스코에서 방문 장소로 출발 서울: 호텔에서 출발(07:30)	벡스코 버스정류장 54-74쪽을 보라
09:15-10:15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0:15-10:45	휴식	
10:45-12:15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2:15-14:15	점심	
14:15-15:45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5:45-16:15	휴식	
16:15-17:45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7:45-18:15	휴식	
18:15-19:45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20:00-20:3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11월 3일 일요일(부산)

09:00-14:00	한국교회와 함께 주일예배 이어서 친교 및 점심 또는 휴식	56쪽을 보라
14:15-16:45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7:00-18:30	한국 문화의 밤	오디토리움
18:30-19: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11월 4일 월요일

08:30-09:00	아침 기도	마당 홀 방문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91쪽을 보라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선교 주제에 관한 전체회의		오디토리움
12:15-14:00	점심		센텀시티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4:15-15:45	마당 워크숍		95-127쪽을 보라
15:45-16:15	휴식		
16:15-17:45	에큐메니칼 좌담		92-93쪽을 보라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화무처리 전체회의 -선거		비즈니스 홀
20:00-20:30	저녁 기도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11월 5일 화요일

08:30-09:00	아침 기도	마당 홀 방문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91쪽을 보라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일치 주제에 관한 전체회의		오디토리움
12:15-14:00	점심		센텀시티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4:15-15:45	마당 워크숍		95-127쪽을 보라
15:45-16:15	휴식		
16:15-17:45	에큐메니칼 좌담		92-93쪽을 보라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화무처리 전체회의 -위원회 보고		비즈니스 홀
20:00-20:30	저녁 기도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11월 6일 수요일

08:30-09:00	아침 기도	마당 홀 방문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91쪽을 보라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정의 주제에 관한 전체회의		오디토리움
12:15-14:00	점심		센텀시티
	위원회 회의		
14:15-15:45	마당 워크숍		95-127쪽을 보라
15:45-16:15	휴식		
16:15-17:45	회무처리 전체회의 -위원회 보고		비즈니스 홀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회무처리 전체회의 -위원회 보고		비즈니스 홀
20:00-20:30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수요일예배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11월 7일 목요일

08:30-09:00	아침 기도	마당 홀 방문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91쪽을 보라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평화 주제에 관한 전체회의		오디토리움
12:15-14:00	점심		센텀시티
	위원회 회의		33-49쪽을 보라
14:15-15:45	마당 워크숍		95-127쪽을 보라
15:45-16:15	휴식		
16:15-17:45	화무처리 전체회의 -위원회 보고		비즈니스 홀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교파별 회의		93쪽을 보라
20:00-20:30	저녁 기도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11월 8일 금요일

08:30-09:00	아침 기도	마당 홀 방문	예배실
09:15-10:15	회무처리 전체회의 -위원회 보고		비즈니스 홀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폐회예배		비즈니스 홀
12:15-14:00	점심		센텀시티
14:15-15:45	보냄예배		예배실
15:45-16:15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16:15-19:45	WCC 중앙위원회		비즈니스 홀

오늘의 약속

07:00	15:00
08:00	16:00
0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총회 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한 안내

총회 산하 각종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동안(총회 일정표를 보라) 지정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점심 시간(점심 제공)에 개최된다. 하루 전체를 할애하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날은 11월 2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일요일에 수행되는 위원회 활동은 일요일 오후에 시작한다.

총회 프로그램지침위원회

1. 위임사무와 과제

프로그램지침위원회(Programme Guidelines Committee, PGC)의 위임사무는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WCC의 모든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정책을 제공한다.

- a) <정의를 행하는 믿음: 포르토 알레그레로부터 부산에 이르는 WCC의 여정> (A Faith That Does Justice: The Journey of the WCC from Porto Alegre to Busan) 보고서를 이용하여 WCC의 프로그램 활동을 검토한다.
- b) 교회, 에큐메니칼 발전, 일치, 선교, 공적인 증언, 디아코니아(diakonia) 영역에 관련된 미래의 프로그램 활동과 관계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 c) 총회의 위임사무를 고려하여 미래의 활동에 관한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중앙위원회는 WCC에게 회원 교회들 간, 더 나아가 에큐메니칼 운동 전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회원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 전체에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개발하도록 요청해왔다. 프로그램

지침위원회는 교회와 에큐메니칼 발전, 일치와 선교, 공적 증언과 디아코니아의 영역에 대한 미래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통합적으로 숙고하며, 소위원회는 이 세 영역 내의 다양한 내용을 검토한다.

2.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1차 회의: 10월 31일 목요일, 점심 시간

- 위원들에 대한 소개
- 합의제 결의과정에 대한 소개
- 위임사무와 과제, 활동 방법과 의제에 대한 소개
- 에큐메니칼 좌담으로부터 자료 입수: 위원회 위원들은 에큐메니칼 좌담과 전체회의에 배정되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고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

2차 회의: 11월 1일 금요일, 점심 시간

- 지난 총회 이후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검토

프로그램지침위원회는 <정의를 행하는 믿음: 포르토 알레그레로부터 부산에 이르는 WCC의 여정>과 <사전 대회 평가>(Pre-Assembly Evaluation) 문서를 검토한다. 두 문서를 읽기 위한 배경 정보는 중앙위원회의 프로그램지침위원회 핵심 그룹과 프로그램지침위원회의 2012년 10월 보고서, 실행위원회 프로그램 소위원회의 2013년 3월 보고서이다. 프로그램지침위원회 위원들은 미리 발송된 이 보고서를 읽어 와야 한다. 프로그램지침위원회에 소속된 두 명의 위원이 두 보고서와 이 두 보고서에 대한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한다.

예상 결과: 프로그램지침위원회는 두 보고서, <정의를 행하는 믿음: 포르토 알레그레로부터 부산에 이르는 WCC의 여정>과 <사전 대회 평가>를 접수할 것을 제안하고, 배워야 할 교훈을 강조한다.

3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전

- 의장과 총무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WCC의 미래활동 방향에 대한 1차적인 방향설정을 위해 총회 주제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검토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룬다.

- ✓ 시대의 표징: 오늘날 회원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 기독교와 세계 전체의 긴급한 질문은 무엇인가?
- ✓ 교회들의 협의회인 WCC는 회원 교회의 삶과 사업,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 기독교, 세계 전체에서 적절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 ✓ WCC 활동에 교회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과 활동방식이 적절한가?

예상 결과: 프로그램지침위원회는 WCC의 향후 활동에 대한 방향과 방법론에 관한 1차적이고 잠정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이 내용은 세 개의 소위원회가 수행할 세부내용 검토활동에 지침이 된다.

4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아침

- 세 개의 소위원회 활동: 1. 교회와 에큐메니칼 발전, 2. 일치와 선교, 3. 공적 증언과 디아코니아
 - ✓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검토

예상 결과: 소위원회는 프로그램지침위원회에 보고서를 접수하도록 제안하고, 배워야 할 교훈을 강조한다.

5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후

- 소위원회 활동 계속
 - ✓ 프로그램지침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미래의 방향과 방법론을 숙고한다.

6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후

- 소위원회 활동 계속
 - ✓ 프로그램지침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미래의 방향과 방법론을 계속 숙고한다.
 - ✓ 소위원회가 프로그램지침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1차 초안을 작성한다.
 - ✓ 프로그램지침위원회 의장(그리고 다른 대표[들])이 총회 재정위원회와 의견을 공유한다.

예상 결과: 소위원회는 미래 방향과 방법론을 프로그램지침위원회에 제안한다.

7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저녁

-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공유한다.
 - ✓ 3개의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1차로 공유한다.

8차 회의: 11월 3일 일요일, 오후

- 에큐메니칼 대화 모임과 전체회의에서 나온 통찰을 공유한다.
 - ✓ 프로그램지침위원회는 미래 방향과 방법론에 관한 방향설정에 대한 자신들의 1차적인 검토 내용과 에큐메니칼 좌담과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비교한다.

9차 회의: 11월 3일 일요일, 저녁

- 총회 위임사무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한다.
 - ✓ 이전 시기에 WCC가 수행한 활동, 의장과 총무의 보고, 소위원회의 보고, 에큐메니칼 좌담에서 나온 통찰에 대해 숙고한 내용을 WCC가 앞으로 수행할 활동을 1차 보고서 초안에 포함시킨다.

10차 회의: 11월 4일 월요일, 점심 시간

- 프로그램지침위원회의 1차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다.
 - ✓ 토론모임 기록자와 의장은 프로그램지침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토론 내용에 기초하여 소위원회 의장들과 협의한 후 프로그램지침위원회에서 검토할 보고서 초안을 준비한다.

11차 회의: 11월 5일 화요일, 점심 시간

- 프로그램지침위원회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 ✓ 토론모임 기록자와 의장은 이전 회의에서 나온 검토 내용을 기초로 프로그램지침위원회의 보고서 2차 초안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지침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승인받는다.

예상 결과: 프로그램지침위원회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승인한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WCC 활동의 명확한 방향과 방법론이 포함된다.

총회 정책검토위원회

1. 위임사무와 과제

정책검토위원회(Assembly Policy Reference Committee, PRC)는 의장과 총무의 보고, 회원자격 문제에 관한 총회의 조치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WCC의 헌장과 규칙에 관한 수정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정책검토위원회의 소위원회는 <하나님의 선물과 일치의 소명-우리의 헌신>(Gift and Call to Unity-and our commitment)이라는 성명서를 검토, 수정하여 정책검토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도록 준비한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각자의 특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정책검토위원회에 참여한다.

2.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1차 회의: 10월 31일 목요일, 점심 시간

- 환영 인사
- 합의제 절차에 대한 소개
- 위원과 지도부에 대한 소개
- 맡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 일치성명서소위원회의 역할
- 관련 배경 문서에 대한 소개

2차 회의: 11월 1일 금요일, 점심 시간

- 중앙위원회 의장이 제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 보고서 내용 중 정책검토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에 관련된 내용을 토론한다.
- WCC 총무가 제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 보고서 내용 중 정책검토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에 관련된 내용을 토론한다.

일치성명서소위원회

- 관련 배경 문서를 검토한다.
- 성명서에 대한 1차적인 응답 내용을 작성한다.
- 성명서 내용을 다룰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피드백을 얻기 위해 추가적인 청문회를 준비한다.

3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전

회원자격 문제

- 포르토 알레그레 이후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제출된 WCC 회원 교회에 관한 회원자격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 WCC 회원 교회와 관련된 이슈와 문제(통합, 합병 등)를 확인하고 토론한다.

일치성명서소위원회

- 전체회의와 추가적인 청문회가 제시한 피드백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에큐메

니칼 좌담, 특히 교회론과 선교와 관련된 좌담에서 나온 보고서를 검토한다.

- 수정할 내용을 찾는다.

4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전

회원자격 문제

- 포르토 알레그레 이후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제출된 WCC 가입신청과 관련된 회원자격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 회원신청 교회를 둘러본 후 작성된 여행 보고서를 검토한다.

일치성명서소위원회

- 문서 편집 작업

5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전

WCC 헌장과 규칙에 대한 수정 내용

정책검토위원회는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WCC 헌장과 규칙을 숙고한다. 아울러

-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WCC 헌장의 수정 내용을 처리한다.
- WCC 규칙I, VI에 대한 수정내용을 처리한다. 이 수정 내용은 2012년에 중앙위원회가 이미 승인했으며, 총회의 승인만 거치면 발효될 것이다.

일치성명서소위원회

- 편집
- 일치성명서소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완료한 경우 정책검토위원회에 참여한다.

6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후

WCC 헌장과 규칙, 규칙 부록에 대한 수정

- 총회 전 또는 총회 기간 동안 헌장과 규칙에 대한 그 이외 다른 수정 내용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 규칙 부록에 관련된 문제를 숙고한다.

일치성명서소위원회

- 편집
- 일치성명서소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완료한 경우 정책검토위원회에 참여한다.

7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후

-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 토론모임 기록자와 의장은 초안 작성을 시작한다.

8차 회의: 11월 3일 일요일, 오후

- 전체 정책검토위원회와 일치성명서소위원회의 보고를 위해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 일치성명서소위원회는 수정 내용(필요한 조치)을 제안한다.
- 정책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수정 내용(필요한 조치)을 제안한다.

9차 회의: 11월 3일 일요일, 오후

- 전체 정책검토위원회와 일치성명서소위원회의 보고를 위해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초안 작성을 한다.
- 정책검토위원회 보고서와 일치성명서 작업(필요한 조치)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
- 보고서를 제출하여 번역한다.

10차 회의: 11월 3일 일요일, 저녁

- 필요한 업무와 발표 문제를 다룬다.

11차 회의: 11월 4일 월요일

-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을 다룬다.

필요할 경우 보고서 개정을 위해 추가로 회의를 연다.

총회 공공쟁점처리위원회

1. 위임사무와 과제

공공쟁점처리위원회(Assembly Public Issues Committee, PIC)의 위임사무는 총회가 채택할 공식 성명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공식 성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은 WCC 규칙 VII에 나와 있다.

WCC는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총회나 중앙위원회를 통해 WCC나 회원 교회가 당면한 모든 상황이나 관심사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성명서는 매우 폭넓은 대표성을 지닌 기독교 단체의 판단이나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큰 의미와 영향을 미치지만, 성명서의 권위는 오로지 성명서가 전달하는 진리와 통찰의 무게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WCC가 회원 교회들을 지배하는 헌장적 권위나 그들을 대변하는 권리를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공식 성명서를 작성할 쟁점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주요 기준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WCC가 직접적 참여와 오랫동안 헌신을 쏟아온 쟁점 분야
-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어서 교회의 행동을 위한 주목이 요구되는 최근 쟁점
- WCC의 판단 하에 그의 영적·도덕적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는 위태롭게 전개 중인 정치적 상황
- WCC가 언급해야만 한다고 회원 교회들이 기대하는 사항
- WCC 임원진을 위해 정책이나 권한을 정할 필요성

신중한 선택 과정을 거친 후 국제문제위원회, WCC의 지도부, 2012년 실행위원회, 2012년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실행위원회는 다음 내용에 관한 각각의 성명서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하였다.

- 종교의 정치화 상황 속에서 종교의 자유 및 모든 종교 공동체의 권리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정의로운 평화
- 무국적자의 인권

초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쟁점들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요청할 것이며, 아울러 추가적인 쟁점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마감 시한을 총대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공공쟁점처리위원회의 과제는 성명서 채택을 위해 총회에 제시할 성명서 초안 내용을 토론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공공쟁점처리위원회는 국제적인 쟁점에 대해 정부나 국제기구, 그 이외 다른 정치적 의사결정 조직에 제시할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회원 교화에 정책 안내지침을 제시한다.

2.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10월 30일 수요일 저녁(18시 15분):

제안된 공공쟁점에 관한 문서는 회무처리 전체회의(18시 15분-19시 45분)에 제출되어 총대들에게 배포된다. 총대들은 문서 배포 후 24시간 이내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1차 회의: 10월 31일 목요일, 점심 시간

-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위원 소개, 공공쟁점처리위원회의 과제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소개, 의제에 대한 소개
- 합의제 결의과정에 대한 소개
- 제안된 공공쟁점에 관한 문서내용 발표
- 공공쟁점처리위원회 위원들 간에 업무를 배분하여 구체적인 쟁점을 다룸

10월 31일 목요일(19시 30분):

총대들이 새로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

2차 회의: 11월 1일 금요일, 점심 시간

- 공공쟁점과 관련하여 총회로부터 접수한 새로운 제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공공쟁점처리위원회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별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초안 작성 소그룹을 만들고, 각 소그룹이 자체 회의시간을 정하게 한다. 공공쟁점처리위원회 의장과 토론모임 기록자, 담당 WCC 직원이 조정과 점검 업무를 맡으며, 이들은 매일 아침에 모임을 갖는다.

3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전

- 공공쟁점에 대한 토론 및 초안 작성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4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전

- 공공쟁점에 대한 토론 및 초안 작성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5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후

- 공공쟁점에 대한 토론 및 초안 작성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6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후

- 초안 작성 그룹이 작성한 성명서 문안을 1차로 읽고, 1차 공공쟁점처리위원회 보고를 위한 제안서에 합의한다.

7차 회의: 11월 3일 일요일, 오후

- 초안 작성 그룹의 나머지 성명서 문안을 1차로 읽고, 1차 공공쟁점처리위원회 보고를 위한 제안서에 합의한다.

8차 회의: 11월 4일 월요일, 점심 시간

- 공공쟁점처리위원회의 (나머지 쟁점에 관한) 2차 공공쟁점처리위원회 보고를 위한 제안서에 합의한다.

9차 회의: 11월 5일 화요일, 점심 시간

- 공공쟁점처리위원회의 (나머지 쟁점에 관한) 2차 공공쟁점처리위원회 보고를 위한 제안서에 합의한다.

총회 재정위원회

1. 위임사무와 과제

총회 재정위원회(The Assembly Finance Committee, AFC)는 지난 7년 동안의 WCC 재정상황과 개요서를 검토한다. 프로그램지침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수입 전망을 검토한 후 향후 활동주기 동안의 재정전략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안한다.

총회 재정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a) 포르토 알레그레 이후 WCC의 재정을 검토하는데, 수입 흐름, 프로그램 직접비와 인건비, 기반시설 직접비와 인건비, 에큐메니칼 센터와 에큐메니칼 연구소의 주요 건축공사, 연금기금이 포함된다.
- b) 총대들에게 WCC 재정의 개요와 미래의 전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 c)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권고하여 중앙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게 한다.

2.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1차 회의: 10월 31일 목요일, 점심 시간

- 환영 인사와 소개
- 합의제 결의과정에 대한 소개
-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검토
- 에큐메니칼 좌담에 관한 과제 배분
- 소개된 의제에 관한 검토
-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재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2차 회의: 11월 1일 금요일, 점심 시간

- 재정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의장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 재정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총무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 2006-12년 동안의 재정 추이와 관리, 현재의 운영관리 문제, 미래의 전망을 검토한다.

3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전

- 제안된 헌장과 규칙의 수정 내용을 재정과 관련된 운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 정책검토위원회와 의견을 나눈다.

4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전

- 회원 교회의 분담금과 회원 교회의 분담금 구조를 검토한다.
- 2014-17년 동안의 프로그램 수입원 개발과 전략을 검토한다.

5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후

- 2014-17년 동안의 재정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 재정의 기준과 한도에 관한 의견을 준비하여 프로그램지침위원회와 공유한다.

6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후

- 프로그램지침위원회의 의장(그리고 다른 총대[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나눈다.

7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저녁

- WCC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접수하여 중앙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한다.
-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다.
- 연금기금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다.

8차 회의: 11월 3일 일요일, 오후

- 에큐메니칼 좌담에서 총회 재정위원회 회원의 보고를 듣는다.
- 총회에 제출할 재정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토론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9차 회의: 11월 3일 월요일, 저녁

- 총회에 제출할 총회 재정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

총회 인선위원회

1. 위임사무와 과제

총회 인선위원회(The Assembly Nominations Committee, ANC)는 회원 교회, 대륙별, 교파별 대표자 회의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총대 가운데서 중앙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의 후보자 명단을 제안한다.

2.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1차 회의: 10월 30일 수요일, 저녁(저녁 식사 중)

- 위임사무, 과제, 일정에 대한 소개
- 합의제 결의과정에 대한 소개
- 책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소위원회 배분
- 새로운 중앙위원회 개요(명단 없음)에 관한 인선위원회의 1차 보고서 초안에 대한 토론
- 관련 배경 문서 소개
- 최근까지 회원 교회가 제출한 인선 자료 소개

2차 회의: 10월 31일 목요일, 점심 시간

- 총무의 의견을 발표한다.
- 대륙별 회의(18시 15분-19시 45분)를 준비한다. 이 회의에서 후보 인선(그중

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후보 인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예상 결과: 14시 15분-15시 45분에 개최될 전체회의와 청문회에 제출할 인선 위원회의 1차 보고서

3차 회의: 11월 1일 금요일, 점심 시간

- 대륙별 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평가하고 인선위원회의 2차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

예상 결과: 14시 15분-15시 45분에 개최될 전체회의와 청문회에 제출할 인선 위원회의 2차 보고서

4차 회의: 11월 2일 금요일, 하루 종일

-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5차 회의: 11월 3일 일요일, 오후

- 인선 후보 명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인선 후보 전체 명단이 포함된 인선위원회의 보고서를 준비한다.

6차 회의: 11월 4일 월요일

예상 결과: 18시 15분-19시 45분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와 토론 시간에 제출할 인선위원회의 3차 보고서

선거가 실시되면 위원회의 업무는 종료된다.

선거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인선위원회는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총회 메시지위원회

1. 위임사무와 과제

총회 메시지위원회(Assembly Message Committee, AMC)는 총회의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전체회의, 에큐메니칼 좌담, 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주의 깊게 경청할 책임이 있다. 메시지위원회는 경청한 내용을 기초로 부산에서 모인 사람들의 경험과 희망을 잘 포착하는 글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채택되도록 한다. 이런 메시지의 목적은 에큐메니칼 활동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영감을 주고, 아울러 세계 전체에 그리스도인들의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1차 회의: 10월 31일 목요일, 점심 시간

- 다음 내용을 간단하게 검토
 - 메시지란 무엇인가?
 -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 만드는가?
 - 메시지 초안은 언제 전체회의에서 검토되는가?
- 1차 회의에서는 자기소개와 공동체 팀워크 함양, 합의제 결의과정에 대한 소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2차 회의: 11월 1일 금요일, 점심 시간

- 신입 위원을 소개한다.
- 부산에서 보내는 메시지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 짧은 예비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분담한다. 이 업무는 개인이나 매우 작은 소그룹에 맡길 수 있다.

3차 회의: 11월 2일 토요일, 오전과 오후

위원회는 대략적인 초안을 발표한 후 바람직한 형태와 내용을 다시 숙고한다. 우선, 업무수행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을 결정한다—메시지의 특정 내용에 대해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할지, 소그룹으로 나누어 처리를 할지 결정한다.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초안을 편집하거나 다시 쓰기 업무를 분담한다.

4차 회의: 11월 3일 일요일, 오후 그리고/또는 저녁

전체회의에 제출할 메시지 초안에 대해 합의한다.

두 번째 주—차후의 회의는 총회의 피드백, 메시지위원회 보고서의 전체회의 제출 일정, 메시지의 수정 필요성, 각 초안에 대한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영적 생활

WCC 제10차 총회는 “기도하는 총회”가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벅스코에 모여서 공동 기도모임을 갖는다. 매일 오전행사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어서 점심 식사를 하며 다양한 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예배도 드린다. 총회는 부산 지역 교회의 생활과 긴밀한 연계 하에 진행되며,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회중들도 총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총회와 더불어 기도한다.

총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이미 받은 『할렐루야! 예배와 찬양자료 모음』에는 총회를 위해 선정한 기도문과 찬양이 들어 있다. 이 책을 매일 지참하기 바란다.

개막행사

모임예배를 포함한 개막행사가 벅스코 내에 마련된 공동 기도 장소에서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에 시작된다.

아침 기도

기도모임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벅스코 내 기도 장소에서 시작된다. 그전에 참가자들이 모이는 동안 찬양시간을 갖는다. 아침 기도에서 봉독할 말씀은 그날에 해당되는 성경공부 주제를 담고 있는 성서 본문에서 채택한다.

저녁 기도

총회는 저녁 19시 45분에 저녁 기도로 모인다. 매일 저녁 한국교회의 주요 교파별로 돌아가며 기도모임을 인도한다. 이러한 교파별 저녁 기도는 여러 교회들이 지켜온 다양한 저녁 기도 예식(만도예식: vesper services)의 전통에 따라 드러진다.

떼제 공동체 기도모임

10월 31일 수요일 12시 15분부터 13시 00시까지 진행된다.

한국인 방문자들과 함께 드리는 수요일예배

11월 6일 수요일 저녁 총회 참가자들은 지역 교회 교우들과 더불어 백스코에서 열리는 한국 전통 방식의 간증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회 소식지를 통해 제공된다.

폐막행사

총회는 11월 8일 오후 14시 15분에 백스코 내 공동 기도 장소에 모여서 보냄예배를 드림으로 폐회된다. 참가자들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파송될 것이다.

공지사항

총회 예배기획위원회와 간사들은 254a에 위치한 총회 예배사무소를 통해 공동예배에 관한 사항들을 조정한다. 지정된 예배시간은 총회의 의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할 것이다.

마당 프로그램

마당(madang)은 전통 한국의 가옥구조에서 안뜰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마당은 만남과 나눔, 축하와 친교를 위한 공간이면서 방문자를 환영하고 이방인을 환대하는 공간이다. 한국교회는 총회가 주최자의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총회에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마당을 제안했다. 1998년 하라레 총회와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는 다양한 그룹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 전시회, 부대 행사를 위한 제한적인 공유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 파다레(padare)와 무티라오(mutirao)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마당은 만남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서 전체 총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최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회의 발표와 토론 공간들, 워크숍, 각종 위원회 등을 좀 더 계획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가진 은사를 배우고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총회 자체가 마당의 정신으로 열리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마당 프로그램은 워크숍, 전시회, 특별행사, 공연, 연극, 시각예술, 토론 공간, 문화행사를 통하여 참가자들이 각자의 은사와 경험을 활발하게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당 워크숍

워크숍은 90분간 진행되는 일회적인 행사로서 총회 참가자들(30-60명 정도)이 함께 나와 토론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워크숍은,

- 에큐메니칼 가족에게 공통의 관심 쟁점과/또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상호적 배움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할 수 있다.
-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 전문적인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여 모범적인 실천을

향한 공통의 접근방식을 개발한다.

-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 미래 작업과 기획에 관련한 지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워크숍은 11월 4일 오후부터 시작하여 4일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워크숍의 개최시간, 장소, 주제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다.

마당 전시회

전시회는 회원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마련한 다양한 작품을 총회 참가자들과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총회 기간 혹은 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된다)이다. 90개의 전시회는 정적인 발표나 전시회(예를 들어 포토 에세이나 예술 전시회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행위예술이나 공연도 제공된다. 전시회는 마당 홀에서 이루어진다.

부대행사

부대행사는 WCC 회원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 일반 대중들을 위한 행사이다. 부대행사는 문화 공연(연극, 춤), 콘서트, 시각예술 등과 같은 음악 마당과 중요한 에큐메니칼 운동가나 저자와의 연속적인 대화와 같은 토론마당, 그리고 청년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춤과 연극 등의 공연은 마당 홀에서 열린다.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 및 사회와 함께하는 에큐메니칼 순례

한국준비위원회는 총대들과 참가자들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주말 프로그램에 초대한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적인 친교를 돈독히 할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을 체험하고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투쟁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은 주말 동안 지역 교회의 회중들을 만나고 한국인들의 문화와 역사, 영성과 투쟁을 체험할 것이다. 한국의 교회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있어서도 이번 행사는 한 지구촌 가족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지역 교회 회중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말 프로그램

총회의 첫 3일 동안 진행된 회무를 마친 후에, 참가자들은 에큐메니칼 순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총 18개의 주말 프로그램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11월 2일 토요일에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 및 생존 투쟁의 현장을 찾아가는 공개 방문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11월 3일 일요일에는 지역 교회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 주말 프로그램은 서울, 부산, 제주도 및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에큐메니칼 평화 순례이다. 참가자들은 북한과 남한 간의 군사적 완충지역인 비무장지대 근처에 위치한 임진각 평화공원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한국인들에게 상존하는 분단의 고통과 아울러 평화에 대한 열망을 보게 될 것이다. 토요일의 일정은 한국 문화공연으로 마무리된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지역 교회 회중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 프로그램은 1박 2일의 행사이므로, 참가자들은 부산에서 호텔별

로 집결한 후에 버스와 열차를 이용하여 서울에 도착한다. 이 주말 행사 일정에는 야외에서의 도보활동(걷기)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설명은 이하의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14개의 프로그램은 부산과 인근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 다문화 현장 및 교회를 방문하는 답사 프로그램이다. 부산 프로그램에는 총회의 주제와 관련된 종교 간 대화의 일환으로 유서 깊은 불교 문화의 중심지인 경주와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 안동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일일 답사 프로그램이므로, 참가자들은 토요일 아침 기도 직후에 백스코를 출발하였다가 하루 일정을 마치고 각자 호텔로 복귀한다. 프로그램 중에는 야외에서의 도보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설명은 이하의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자 피난과 봉기의 역사 현장을 방문하는 답사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여러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사적지를 방문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겪은 투쟁에 대한 체험담을 듣는다. 제주도 프로그램은 1박 2일의 행사이므로, 참가자들은 부산에서 호텔별로 집결한 후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이동한다. 이 주말 행사 일정에는 야외에서의 도보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설명은 이하의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한국인들의 민주화 투쟁의 현장을 방문하여 그 신학적 의미를 되새기는 답사 프로그램이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생명살림 농업과 대안적인 공동체 생활을 소개한다. 광주 프로그램은 세계에 큐메니칼신학원(GETI) 참가자들을 위한 것이다. 광주 프로그램은 1박 2일의 행사이므로 참가자들은 한화리조트에 집결한 후에 버스를 이용하여 광주로 간다. 상세한 설명은 이하의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방문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11월 2일 토요일

서울

1. 서울: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에큐메니칼 평화 순례

부산 및 인근 지역

2. 부산: 해양문화—부산지역의 해양문화 순례
3. 부산: 민주화 역사—부산지역의 민주화 역사 순례
4. 부산: 평화—부산지역의 평화 순례
5. 부산: 정의와 생존권 투쟁—부산의 소외지역 순례
6. 부산: 생태환경—경남지역의 환경 순례
7. 부산: 다종교—부산지역의 다종교 순례
8. 부산: 핵관련 쟁점들—부산지역 핵관련 순례
9. 부산: 다문화—김해지역 다문화 순례
10. 부산: 경제발전—거제지역 경제발전과 정의 순례
11. 부산: 산업과 생태환경—울산지역 생태환경과 산업단지 순례
12. 부산: 경주의 불교 문화—경주지역 불교 문화 순례
13. 부산: 안동의 유교 문화—안동지역 유교 문화 순례
14. 부산: 여성, 인권, 해방—부산지역 여성운동 순례
15. 부산: 소외 지역 선교—경남지역 선교유적 순례

제주도

16. 제주도: 역사와 환경—제주도 역사의 증언과 자연환경 순례

광주 및 인근 지역

17. 광주: 정의와 민주화—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현장 순례

지역 교회 회중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11월 3일, 일요일

모든 참가자들은 토요일에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지 간에, 일요일에는 한국교회 회중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한국의 곳곳에는 감리교회, 개혁신교회, 루터교회, 성결교회, 성공회, 순복음(오순절)교회, 장로교회, 정교회, 침례교회 및 천주교회 등이 있다. 혹 설교자로 초청받았다면, 해당 지역 교회와 사전에 연락하기 바란다.

주일날 방문하여 예배드릴 교회를 확정하기 원한다면, 마당 홀에 위치한 준비위

원회 안내부스로 오기 바란다. 서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토요일 저녁 문화 행사 직후에 지역 교회 대표들을 만날 수 있다. 부산에 있을 경우, 숙박 중인 호텔에서 지역 교회 대표들을 만날 수 있다. 마당 홀에 위치한 준비위원회 안내부스를 방문하여 정확한 예배시간과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바란다.

주말 프로그램 신청 안내

참가자들은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 주말에 서울, 부산, 제주도, 광주 중 어느 곳을 방문할 것인지 선택란에 표시했을 것이다.

부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마당 홀에 위치한 준비위원회 안내부스를 방문하여 14개 방문지 중 한 곳을 예약하기 바란다. 11월 1일 금요일 14시까지 예약을 마쳐 주기 바란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약은 선착순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등록 서류에 서울이나 제주도 혹은 광주 지역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마당 홀에 설치된 준비위원회 안내부스에 알려주기 바란다.

주말 프로그램 참가안내

1. 총회 등록한 참가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개인적인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3. 참가자들은 단체활동이므로 제시된 일정에 따라야 한다.
4. 추위(평균온도 섭씨 10-20도)에 민감한 경우 따뜻한 외출복을 지참한다.
5. 주일예배에서 순서를 담당한 경우 정장을 착용한다.
6. 자리가 한정된 관계로, 선택한 1지망에서 탈락할 수 있다.
7. 서울, 제주도, 광주의 1박 2일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수하물을 지나치게 많이 지참하지 말고, 활동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하게 준비한다. 토요일 아침에 호텔을 출발할 때 체크아웃 하지 않는다.

1. 서울: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에큐메니칼 평화 순례

방문 장소	임진각(남북한 접경지대)－부산에서 430km 임진각 평화공원, 도라산 전망대, 서울 및 인근 지역
참가 인원	최대 80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에큐메니칼적 의의	<p>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종말론적 대망과 같다. 총회 참가자들은 남북한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임진각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같은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분단된 채로 지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임진각에서 한국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도 갖는다. 이어서 저녁 시간에 서울에서 한국 문화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문화의 밤 행사 후에 참가자들은 그들을 초대한 서울지역 교회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p> <p>일요일에 참가자들은 교회별로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이후에 교우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주일 오후에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돌아온다. 서울 방문 프로그램은 임진각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아울러 한국의 경치를 감상하고 수도 서울을 둘러보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p>
행사 진행 (미확정)	<p>11월 2일, 토요일 07:20 부산지역 호텔 출발 08:40 울산역 출발 12:00 점심(열차 내) 13:30 임진각 평화공원 및 도라산 전망대 도착 15:00 서울로 이동 17:00 저녁 식사 18:00 한국 문화의 밤 19:00 호텔 혹은 민박으로 이동</p> <p>11월 3일, 일요일 11:00 서울지역 교회별로 주일예배 참석 15:00 서울역 집결, 부산 복귀</p>
교통수단	KTX(고속 열차) 및 버스. 이 행사는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숙박	서울 지역의 여러 호텔로 분산하여 1박(부대비용 없음)

2. 부산: 해양문화-부산지역의 해양문화 순례

방문 장소	부산 항만-벡스코에서 20km 해운대, 부산항, 해양박물관, 갈맷길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규메니칼적 의의	<p>부산은 아시아와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역사적인 교차로라고 할 수 있다. 이 항구 도시는 한국의 초기 역사부터 문명들이 교류하는 관문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상품과 물자들이 오가는 주요 항만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을 통하여 서로 다른 생활양식들이 교류되고 있다. 또한 부산은 미국, 캐나다 및 호주 선교사들의 관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p> <p>방문자들은 배에 승선하여 해운대, 오륙도, 부산항만 입구, 영도(조선시대 군마 사육장), 송도 해변, 다대포 어시장 및 해양박물관 등 유서 깊은 장소들을 방문한다.</p>
행사 진행 (미확정)	<p>11월 2일, 토요일</p> <p>09:00 벡스코 출발</p> <p>10:30 해운대에서 승선하여 항만 지역 유람</p> <p>12:00 점심</p> <p>13:00 해양박물관 투어(안내자 동반)</p> <p>16:30 갈맷길 답사</p> <p>18:00 해운대로 복귀</p>
교통수단	버스 및 선박

3. 부산: 민주화 역사-부산지역의 민주화 역사 순례

방문 장소	부산 도심-벡스코에서 23km 부산 민주공원, 부산 근대역사관, 성공회 성당, 민주화 거리, 국제시장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큐메니칼적 의의	<p>부산은 주목할 만한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한국 근대사의 발전과정 및 한국의 역사 전반에 걸친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국제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적지들이 많이 있다. 주요 사건들로는 일본의 침략(첫 번째 천년기의 삼국시대부터)과 식민지배(1910-45), 한국전쟁(1950-53), 민주화운동(1970-80년대), 국제화과정(1990년대 이래)을 들 수 있다.</p> <p>부산은 항구 도시로서 해외지역과의 접촉, 외국과의 지정학적 교류 및 경제 교역을 위한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부산은 또한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저항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부산지역의 교회들은 이러한 역사 과정의 동반자가 되어, 각각의 정황 속에서 복음의 증언을 감당하였다. 예컨대, 교회들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도 이주 노동자들 및 다문화 가정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역사 및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p>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10:30 부산 도심 도착, 시내 관광(안내자 동반) 12:00 점심 14:00 시내 관광 계속 16:30 국제시장 방문 18: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4. 부산: 평화-부산지역의 평화 순례

방문 장소	동래 지역-벡스코에서 8km 동래 산성, 동래 사적지, 동래 향교, 부산진 지성, 차이나타운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규메니칼적 의의	<p>동래는 산성이 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조선왕조시대(1392-1910) 때부터 요충지였으므로, 1592년 일본의 침략 당시(임진왜란) 격전지로 유명하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한국과 일본 간에는, 특히 첫 번째 천년기에 속한 삼국시대에도 양국 간에 빈번한 교역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으로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조선을 침략하였다. 한국은 지정학적 갈등의 희생물이 되었으며, 이 사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p> <p>동래 산성이 일본의 침략군에게 함락되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므로, 동래부사(송상헌)가 이끄는 조선군들은 일본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p> <p>참가자들은 동래 산성과 유교 향교를 포함한 사적지들을 방문한다. 향교란 유교식 교육을 실시하던 기관으로서 사대부들과 정부관리들이 교육을 받던 곳이다.</p>
행사 진행 (미확정)	<p>11월 2일, 토요일</p> <p>09:00 벡스코 출발</p> <p>10:00 동래 산성 관광(안내자 동반)</p> <p>12:00 점심</p> <p>15:00 부산진 지성 관광(안내자 동반)</p> <p>15:30 차이나타운, 40계단, 국제시장 방문</p> <p>18:00 해운대로 복귀</p>
교통수단	버스

5. 부산: 정의와 생존권 투쟁-부산의 소외지역 순례

방문 장소	빈민 지역-벡스코에서 18km 감천 문화 마을, 아미동 비석 마을, 매축지 마을, 소막 마을, 무덤 마을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규메니칼적 의의	<p>소외된 이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눈물겹고도 끈질긴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이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강제노역에 내몰리거나 독립운동에 가담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였으나 거주할 장소를 구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찾아든 피난민들 역시 쉼터를 찾기 힘들었다. 1970년대에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빈민들의 삶터가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듯 귀환자들, 피난민들, 빈민들은 일본인이 버리고 간 공동묘지 위에 움막을 짓는 것 말고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으므로, 공동묘지 지역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아미동 비석 마을, 매축지 마을, 무덤 마을은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다.</p> <p>이들의 경험에 대해 듣다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된다. 이 한국인들은 사망한 일본인들, 굳이 말하자면 자신들의 적들이 묻힌 묘지석 위에 움막을 짓고서, 자신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준 망자들을 위해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 자와 죽은 자들 간에 삶의 나눔이 이루어진 셈이다. 오늘날 이 마을들은 자칫 슬럼지역이 될 수도 있었지만, 화가들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거리에 다채로운 벽화가 그려지고 이로써 지역운동의 모범사례로 변모하게 되었다.</p>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10:00 감천 문화 마을, 아미동 비석 마을, 매축지 마을 탐방(안내자 동반) 12:00 점심 13:30 무덤 마을, 소막 마을 탐방(안내자 동반) 18: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6. 부산: 생태환경-경남지역의 환경 순례

방문 장소	부산 인근의 우포와 낙동강 지역-벡스코에서 115km 우포늪, 함안보, 을숙도, 아미산 전망대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규메니칼적 의의	<p>낙동강 유역은 부산 근방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환경 지역이다.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경상남도에는 주남습지와 우포늪을 비롯한 생태환경 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 주남습지가 위치한 창원에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다루는 람사르 총회가 2008년에 개최되었다.</p> <p>한국정부는 2012년 4대강 개발 사업 및 인위적인 습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개발과정은 생태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생태리듬이 상당히 교란되었고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났다. 따라서 이 장소는 개발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곳은 하나님의 어려서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전 1:25)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위의 장소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위적인 개발과 그것이 초래하는 생태환경 파괴에 대해 숙고하도록 촉구한다.</p>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11:00 우포늪 방문 12:30 점심 14:00 을숙도와 아미산 전망대 및 국제시장 방문 18: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7. 부산: 다종교-부산지역의 다종교 순례

방문 장소	동래 지역-벡스코에서 8km 원불교 동래교당, 동래중앙교회, 동래향교, 이슬람 성원, 범어사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에큐메니칼적 의의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4대 종교들을 접하고 평화와 종교 간 대화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부산의 종교단체들을 방문할 것이다. 여기에는 원불교 동래교당, 동래 중앙교회, 동래향교(과거에 정부 관리들과 사대부들의 교육기관으로도 기능하였다)가 포함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한국의 주요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도 방문할 것이다.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10:00 동래향교, 원불교 동래교당, 동래중앙교회 방문 12:00 점심 15:00 이슬람 성원 방문 15:30 범어사 방문, 다례 체험 18: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8. 부산: 핵관련 쟁점들-부산지역 핵관련 순례

방문 장소	동해안에 위치한 핵발전소들-벡스코에서 77km 고리 원자력발전소,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반핵부 산시민대책위원회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규메니칼적 의의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세계로 하여금 원자력의 안전 성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후쿠시마 사태에 자극받아, 유럽의 몇몇 국 가들은 원전 생산의 감축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을 따라, 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기장(28km), 경주 (77km) 및 울진(241km)에 건설되었다. 경주에는 현재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건 설 중이다. 이들 원자력발전소들은 상당히 노후화되었으며, 최근 들어 수차례 고장 이 발생하기도 했다. 23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5개의 발전소가 가동중지 중에 있다. 원자력 발전은 생명 및 평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 중 하나로 부상했다.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09:30 고리 원자력발전소 방문 10:30 환경 및 반핵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12:00 점심 13:00 양남 해안 방문 16:20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방문 18: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9. 김해: 다문화-김해지역 다문화 순례

방문 장소	김해-벡스코에서 30km 가락국(42-532) 고고학 유적지, 이주민 공동체, 다문화 센터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큐메니칼적 의의	<p>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들어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고대시대에 한국은 다문화를 지닌 공동체로서 타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들과 문화권 간의 교류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김해는 타문화와의 조우 및 합류가 일어났던 지역이다. 신라시대에 살았던 불교 승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중국 출신의 인물이 가락국의 왕으로 즉위하기도 하였으며, 그는 인도에서 온 여인을 왕비로 삼아 결혼했다고 전한다.</p> <p>가락국을 통하여 다원적인 문화뿐 아니라 철기 문화가 한국에 도입되었다. 가락국은 신라왕국에 병합되었고, 신라는 결국 삼국을 통일하여 통일신라시대를 열었다. 신라에서 활동하며 삼국 통일의 과업을 달성한 김유신과 같은 군사 지도자도 실은 가락국 가문 출신이었다. 이 점에서 볼 때, 김해는 고대시대에 다원적인 문화를 도입한 선진지역이었으며, 이러한 성격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해는 한국에서 주민들의 공동체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에 속한다.</p>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10:00 가락국 고고학 유적지 투어(안내자 동반) 12:00 점심 13:30 유적지 투어 계속 14:30 다문화 센터와 시장 방문, 기독교 사회봉사 시설 방문 18: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10. 거제: 경제발전-거제지역 경제발전과 정의 순례

방문 장소	거제-벡스코에서 83km 전쟁포로수용소 내 유적 공원, 거제 어촌민속전시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옥포대첩기념공원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규메니칼적 의의	<p>거제는 부산에서 남서방향에 위치한 섬이다. 현재 대규모의 연육교(거가대교)가 건설되어 부산과 거제도를 이어주고 있다. 일제의 침탈이 시작되던 러일전쟁기에 거제도에는 일본 해군의 주둔기지(방비대)가 세워졌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옥포 앞 바다에서는 왜군과 조선수군 사이에 전쟁의 명운을 가르는 첫 해전이 벌어졌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지휘 하에 조선수군은 왜선 700척을 격침시키는 대승을 거두었고, 이를 ‘옥포대첩’이라고 부른다. 이후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왜군과의 모든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육지에서의 수세에도 불구하고 수군의 승전에 힘입어 왜군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 거제시 옥포동에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옥포대첩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p> <p>한국전쟁기에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고, 그 유적이 현재에도 남아 있다. 거제도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운영하는 옥포조선소가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대우 산업단지와 거제 어촌민속전시관도 둘러볼 예정이다.</p>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10:30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견학 12:00 점심 13:30 옥포대첩기념공원 및 거제 어촌민속전시관 관람 15:00 거제포로수용소 유적 공원 견학 18: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11. 울산: 산업과 생태환경-울산지역 생태환경과 산업단지 순례

방문 장소	울산-벡스코에서 64km 현대공업단지, 우봉 감양마을, 태화강, 수산시장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규메니칼적 의의	<p>울산은 한국 공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유명한 현대중공업이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선박도 울산에서 제조된다. 울산은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공업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그늘 또한 존재한다. 울산의 공업화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인권과 노동권 수호투쟁이 주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어왔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배경으로 교회도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교회들도 관심을 기울이며, 대사회적인 선교활동에 가담하게 되었다.</p> <p>생태환경에 관련된 쟁점들 역시 울산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천과 대기의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된 태화강을 정화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발족하였다. 태화강 정화사업은 시민과 정부 및 산업체가 협력하여 생태환경을 복원한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p>
행사 진행 (미확정)	<p>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10:30 현대공업단지 견학(안내자 동반) 12:00 점심(울산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14:10 생태환경으로 복원된 태화강 탐사 15:30 수산시장 방문 16:30 우봉 감양마을 탐방 18:00 해운대로 복귀</p>
교통수단	버스

12. 경주: 경주의 불교 문화-경주지역 불교 문화 순례

방문 장소	경주-벡스코에서 95km 불국사 및 기타 불교 문화 유적지, 경주지역 교회들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큐메니칼적 의의	<p>경주는 신라왕조(기원전 57-서기 935)의 수도였다. 불교는 신라의 국교였으므로 경주는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전통은 아직도 남아 있다. 불국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그 건축과 가람 배치에는 불교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명칭인 “불국”은 부처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신라 불교에는 양대 세력이 있었으니, 곧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던 교종과 지방 호족 및 민중들이 신봉하던 선종으로 대별된다. 교종과 선종은 불교 교리의 해석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불국사는 불국토가 “지금 여기”에 구현되었다고 보는 일종의 불교적 해방사상에 근거하여 조성되었다.</p> <p>경주에는 다수의 불교 문화 유적지뿐 아니라, 신라시대 천문관측 연구소로 추정되는 첨성대도 찾아볼 수 있다. 한마디로 경주는 도시 전체가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하다. 경주 지역에서는 기독교 선교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지역에 뿌리내린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 간에 교회연합활동도 탄탄하다.</p>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8:30 벡스코 출발 10:00 경주 도착, 사적지 탐방 12:00 점심 14:00 불국사 탐방 15:30 예큐메니칼 대담: 생명, 정의, 평화에 대한 불교 사상 18:00 경주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환영 리셉션 20: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13. 안동: 안동의 유교 문화-안동지역 유교 문화 순례

방문 장소	안동-백스코에서 218km 하회마을, 안동장로교회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규메니칼적 의의	<p>안동은 유교 문화의 강한 영향력과 아울러 한국 전통 촌락의 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도시이다. 하회마을에서는 한국의 고건축뿐 아니라, 유명한 가면극을 감상할 수 있다. 하회탈춤이라고 부르는 전통 가면극은 유교적 신분사회 내에서 양반 귀족과 평민 간에 존재하던 사회적 갈등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p> <p>기독교 선교 초기에, 특히 18세기에 천주교가 조선에 전래되자, 조상제례를 둘러싸고 천주교와 유교 간에 피비린내 나는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순한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였다.</p> <p>유교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 종교적 심성 및 사회윤리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인들은 오늘날에도 유교의 사회윤리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한다.</p> <p>유교의 사변적 관념론에 따라 소외되었던 하층 민중들의 처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기독교의 선교 역사도 안동에서 목도할 수 있다.</p>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8:00 백스코 출발 11:00 하회마을 도착 12:30 점심 14:00 하회탈춤 관람 16:00 예규메니칼 대담: 생명, 정의, 평화에 대한 유교 사상 17:00 안동지역 교회들의 삶과 증언 18:00 안동지역 교회 지도자들 및 지역 지도자들의 환영 리셉션 20: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14. 부산: 여성, 인권, 해방-부산지역 여성운동 순례

방문 장소	부산-벡스코에서 23km 민족과 여성전시관(수영동), 새터민 여성쉼터(초량동), 성매매 여성쉼터(완월동), 국 제시장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규메니칼적 의의	<p>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일제 치하에서 순한 여성들이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고, 그들의 고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아직 생존해 있는 위안부들을 만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연대를 나타내고자 한다.</p> <p>한국의 분단 상황은 여러 유형의 난민들을 발생시켰고,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탈북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북한 이탈주민들 중에, 특히 여성들은 해외와 한국 내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에 귀 기울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부산 YWCA는 탈북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들과 점심을 나누며 훌륭한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p>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10:30 민족과 여성전시관 11:30 새터민 여성쉼터 방문 12:00 점심(YWCA 임원들과) 13:30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살림' 방문 16:00 국제시장 방문 18: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15. 마산: 소외지역 선교-경남지역 선교유적 순례

방문 장소	부산-벡스코에서 23km 부산: 부산진교회, 일신기독병원, 기타 사적지 마산: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 호주선교사 묘원, 문창교회(순교자 주기철 목사 사역지)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에큐메니칼적 의의	<p>1889년 호주 선교사들의 내한과 더불어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에서 교회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선교사역을 위해 120명이 넘는 남녀 선교사들이 호주에서 파송되어 왔다. 이들 중에는 1-2년 정도 체류한 이들도 있고, 40년 이상 장기간 헌신한 이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소천하여 이곳에서 안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 신장은 부산지역에서 호주 선교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분야이다.</p> <p>이들의 선교사역은 교회설립, 의료선교 사역 및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평등권을 신장하기 위한 근대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부산지역의 교회들은 교파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일구어 놓은 사역의 열매를 누리면서 그들이 시작한 선교사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선교사들이 사역하던 선교사적지와 아울러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목회하던 문창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다.</p>
행사 진행 (미확정)	11월 2일, 토요일 09:00 벡스코 출발 10:00 부산진교회, 일신기독병원 탐방(안내자 동반) 12:00 점심 13:00 마산으로 이동 14:00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 및 호주선교사 묘원 방문 15:30 문창교회 방문 16:00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 18:00 해운대로 복귀
교통수단	버스

16. 제주도: 역사와 환경-제주도 역사의 증언과 자연환경 순례

방문 장소	제주도-부산에서 420km 제주 4·3평화공원, 성산일출봉(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강정마을 및 민박지 근처 자연 경관
참가 인원	최대 30명
프로그램의 성격과 에큐메니칼적 의의	<p>제주도는 한국인들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여행지이다. 제주도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주도 주민 중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p> <p>역사적으로 제주도는 유배지로 알려져 왔다. 1950년대 초 약 3만 명 주민들이 공산주의자로 오인되어 정부군에 의해 살육당하는 대규모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4·3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아직도 감춰진 역사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강정마을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부터 이 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오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서 군사기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p>
행사 진행 (미확정)	<p>11월 2일, 토요일 07:00 부산공항 출발 09:00 제주공항 도착 09:30 제주 4·3평화공원 방문 12:00 점심 13:00 성산일출봉 15:30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 18:00 민박</p> <p>11월 3일, 일요일 11:00 주일예배 참석 15:00 제주공항 출발 17:00 부산공항 도착</p>
교통수단	항공기, 버스, 승용차. 이 행사는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숙박	민박

17. 광주: 정의와 민주화-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현장 순례

방문 장소	광주-부산에서 270km 호남신학대학교, 국립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참가 인원	세계에큐메니칼신학원(GETI) 참가자
프로그램의 성격과 에큐메니칼적 의의	<p>광주는 민주화운동의 발생지로 유명하다. 광주시민들은 198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30년 이상 지속된 군사독재로 고통받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민주화운동 와중에 수천 명(주로 젊은이들)의 인명이 희생되었다.</p> <p>세계에큐메니칼신학원(GETI) 학생들에게는 이번 방문이 정의를 위한 사회 참여와 그것이 지닌 신학적 의의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신학 교육을 주제로 좌담이 진행될 것이다. 일요일에 GETI 학생들은 광주지역의 여러 교회별로 나누어 주일예배에 참석할 예정이다. GETI 학생들에 대한 숙박과 편의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제공할 것이다.</p>
행사 진행 (미확정)	<p>11월 2일, 토요일 08:15 부산 출발 12:00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도착 12:00-13:30 중식 및 방 배정 13:30-13:50 인사말, 호남신대 및 호남신대 선교사모지 소개, 광주,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13:50-14:30 호남신대선교사모지 및 캠퍼스 방문 14:30-15:10 국립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원 방문 15:10-17:10 공식적인 행사, 비디오시청, 모지참배 17:10-17:50 호남신대로 돌아오기 18:00-19:30 저녁 19:30-20:30 강의(송인동 교수) 20:40-21:30 그룹 세미나 21:30-24:00 친교모임</p> <p>11월 3일, 일요일 7:30-9:00 아침식사 9:30 교회로 출발 11:00 주일예배 12:30-13:00 점심식사 13:30-13:50 호남신대 도착 14:00 부산 출발</p>
교통수단	버스. 이 행사는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숙박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제공

유용한 한국어 표현

인사와 기본적 표현

Hello! 안녕하세요![an-nyeong-ha-se-yo!]

Yes, 네.[Ne], No, 아니요.[a-ni-yo]

Please, 부탁드립니다.[bu-tak-ham-ni-da]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gam-sa-ham-ni-da]

I'm sorry, 미안합니다.[mi-an-ham-ni-da]

I don't speak Korean, 한국어 할 줄 몰라요.[han-gu-geo-hal-jul-mo-la-yo]

Do you speak English? French? Spanish? German?

영어 할 줄 아세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young-eo-hal-jul-a-se-yo?
pranseo? spain-eo? dogil-eo?]

Where is the toilet/restroom? 화장실이 어디인가요?[hwa-jang-si-li-eo-din-
ga-yo?]

How much is it this? 얼마예요?[eol-ma-e-yo?]

What time is it? 몇 시예요?[myut-si-e-yo?]

I am sick, 아파요.[A-pa-yo]

I am lost, 길을 잃어버렸어요.[gil-eul il-eo-beo-ryu-seo-yo]

식당에서

Could you recommend something delicious? 맛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ma-sit-neun-geo chu-cheon-he ju-se-yo]

Could you please give me a glass of water? 물 주세요.[mul-ju-se-yo]

Could you make it not spicy? 안 맵게 해주세요.[an-mep-gea he-ju-se-yo]

It's delicious! 맛있어요.[ma-si-sseo-yo!]

기타 표현

Yesterday 어제[eo-je], Today 오늘[o-neul], Tomorrow 내일[ne-il]

Entrance 입구[ib-gu], Exit 출구[chul-gu]

Now 지금[ji-geum], Later 나중[na-jung]

Start 시작[si-jak], End 끝[ggeut]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de-a-han-min-guk]

Seoul 서울, Busan 부산, Gwangju 광주, Inchoen 인천, Gimpo 김포

Monday 월[wol], Tuesday 화[hwa], Wednesday 수[su]

Thursday 목[mok], Friday 금[geum], Saturday 토[to], Sunday 일[il]

The beautiful land of Korea, far and wide 삼천리 금수강산[sam-cheon-li
geum-su-kang-san]

God 하나님[ha-na-nim]

Courtyard or Garden 마당[adang]

Life 생명[seang-myung], Justice 정의[jung-eui], Peace 평화[pyeong-hwa]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
로 이끄소서.[seang-myung-eui ha-na-nim, jung-eui-wa pyeonghwa-ro
ju-heoi-reul i-ggeoi-so-seo]

총회에서의 생활

총회 운영팀

500명 이상의 총회 직원, 진행요원, 촉탁 직원, 통역자, 한국준비위원회 직원,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 총회 운영팀은 모든 참가자들이 총회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원한다.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는 행사장 입구 좌측에 있는 마당 홀에 마련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대답해주려고 노력하겠지만 모두 대답해줄지 못할 수도 있다. 간이 안내데스크는 오디토리움(거리 쪽)의 메인 출입구에 있다.

등록

참가자들이 김해공항이나 마당 홀 안내데스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총회에 등록한 상태일 것이다. 참가자들이 등록할 때 받은 “등록확인서”라는 서류에는 각 참가자가 어떤 자격으로 등록했으며, 어떤 성경공부 그룹과 에큐메니칼 좌담, 주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날짜, 비행시간과 같은 세부적인 출발정보와 이메일을 비롯한 연락처가 잘못된 경우, 마당 홀에 있는 안내데스크로 알려주기 바란다.

이름표

각 참가자에게는 신분확인 및 보안을 위해 이름표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백스코에 있을 때 항상 이름표를 착용하기 바란다.

총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름표는 색깔로 구분된다. 의사결정에 참

여할 책임이 있는 회원 교회 총대들은 푸른색, 회의 주재자의 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참가자들은 녹색, 그 외 다른 참가자들의 이름표에는 색깔이 없다. 의사결정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프로그램 안내』의 “세계교회협의회 회의 진행에 대한 지침” 부분을 보기 바란다.

벅스코

총회는 부산에 있는 벅스코에서 개최된다. 모든 총회 행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벅스코는 크게 오디토리움, 컨벤션 홀, 전시회장으로 구성된다. 총회 장소 지도는 이 책의 뒤표지에 나와 있다.

컨벤션 홀

컨벤션 홀은 오디토리움과 전시회장 사이에 있다. 컨벤션 홀에서는 총회 사전 행사, 성경공부, 에큐메니칼 좌담, 대륙별 회의, 교파별 회의, 마당 워크숍이 이루어진다. 대연회실은 3층에 있으며 APEC 홀은 2층에 있다.

예배실

예배실은 벅스코 전시회장 안에 있다. 총회 모임예배,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폐제 공동체 기도모임(10월 30일),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수요일예배(11월 6일), 보냄예배 등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좌석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마당 홀

마당 홀에서는 100개 이상의 한국 전시 및 국제 전시, 만남의 장소, 특별공연무대가 제공된다. 마당 홀에는 총회 서점, 안내데스크, 한국준비위원회 데스크, 관광과 서비스를 위한 리 컨벤션(Lee Convention)이 있다. 마당 홀은 10월 30일부터 매일 9시 15분에서 19시 30분까지 개방되며, 주일에는 문을 닫는다. 마당 홀에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90-92페이지를 보기 바란다.

비즈니스 홀

비즈니스 홀은 총회의 실무위원회 회의와 선거가 이루어지고 여러 위원회가 보고

를 하는 장소이다. 비즈니스 홀은 모든 참가자에게 개방된다. 총대와 다른 공식 참가자들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총대, 대표단 자문위원, 중앙위원회의 퇴임위원을 포함한 회원 교회 대표단들은 테이블에 함께 앉는다. 파송 대표자, 파송 참관인과 파송 자문위원들도 테이블에 앉는다. 참관인, 방문자, 승인받은 매체와 총회 참가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통역 장비

오디토리움, 대연회실, 비즈니스 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는 동시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각 행사장에 들어올 때마다 마련된 헤드셋을 갖고 들어오고 행사장을 떠날 때는 헤드셋을 놓아두기 바란다. 헤드셋을 갖고 가지 말기 바란다.

백스코의 접근성

총회는 에큐메니칼 장애인연대네트워크(EDAN)와 서로 협력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총회 개최 장소는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모든 무대에는 이동용 램프가 설치되어 있다. 만일 참가자가 EDAN의 회원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마당 홀을 방문하기 바란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마당 홀에 있는 안내데스크를 찾기 바란다.

재활용과 환경보호

한국 전체와 백스코는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백스코에 비치된 모든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수거된다. 오디토리움, 예배실, 마당 홀, 비즈니스 홀과 같은 백스코의 대부분의 장소에는 종이 재활용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물과 리넨 제품에 대해서는 호텔의 지시사항을 따라주기 바란다.

백스코를 오가는 교통편

총회 개최지에서 인근의 센텀시티, 마린시티, 해운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운행시간표에 따라 셔틀버스를 타고 벡스코를 오갈 수 있다. 운행시간표는 호텔에 공지된다.

부산 총회를 지원하는 컨퍼런스 서비스 전문업체인 리 컨벤션은 매일의 교통편을 관리한다. 각 호텔에는 색깔과 문자로 표시된 버스 노선이 제공된다. 참가자는 자신의 “노선”을 재빨리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가 낮에 호텔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경우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

벡스코의 교통 센터는 비즈니스 홀 근처 가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 책의 뒤표지에 있는 총회 안내지도를 보기 바란다.

부산 직접 둘러보기

대도시 부산은 여러 근교 지역으로 이루어진 거대도시이며 근교 지역은 훌륭한 지하철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시를 탐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너무 멀다. 도시 지도를 확인하기 바란다.

벡스코 지하철역은 총회 개최지 지하에 있으며 이곳에서 몇 정류장만 가면 해운대역이 있다.

참가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 탈 수 있다. 택시는 벡스코 주변이나 호텔, 레스토랑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가려고 할 때는 호텔의 “비즈니스 카드”를 사용하여 행선지를 알려주기 바란다. 만일 택시를 이용하여 레스토랑으로 갈 경우 호텔의 프런트에 해당 레스토랑의 이름과 주소를 종이에 적어달라고 요청하여 택시 운전사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식사—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식사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벡스코나 호텔 인근의 일반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센텀시티, 마린시티, 해운대 등 세 곳에서 머물 예정이다. *Busan Now*는 다양한 레스토랑의 위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숙소 인근 지역의 맛있는 한국 음식을 찾아서 맛보기를 바란다.

만일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여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알레르기 카드를 발급받기 바란다.

자신이 묵는 호텔이나 주변의 커피숍에서도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객실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로 비용이 청구될 것이다. 호텔 아침 식사는 보통 뷔페 형식으로 제공된다. 호텔 뷔페 식사의 가격은 최고 미화 30달러가 나올 수 있다. 근처 레스토랑의 아침 식사 가격은 미화 10달러 정도이다.

당일 사용 중인 회의실 밖에 있는 복도에서 매일 아침과 오후에 지역 교회가 마련한 커피와 차가 제공된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총회가 제공하는 커피와 차 보온병을 재사용하기 바란다. 이 보온병은 에큐메니칼 물 네트워크(Ecumenical Water Network, EWN)가 후원한 것이다.

정수기는 백스코 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냉수와 온수를 제공한다.

점심 식사는 백스코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 길 건너편 백화점, 몇 블록 떨어진 센텀시티에 있는 많은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다. 2시간의 점심 시간 동안 총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인근 지역을 살펴볼 수 있다.

백화점 지하에는 푸드 코트가 있고 위층에는 레스토랑이 있다. 백스코 오디오 리움과 백화점 맨 위층에는 야외 정원이 있다. 2층과 3층에는 레스토랑이 많이 있으니 먹거리를 찾아보기 바란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Busan Now*를 살펴보기 바란다.

저녁 식사는 호텔 인근 지역의 많은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다. 더 알고 싶으면 *Busan Now*를 보기 바란다. 호텔 내 총회 안내데스크에서 추천 레스토랑과 그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별한 저녁 식사나 행사를 예약하고 싶을 경우 마당 홀에 있는 안내데스크나 리 컨벤션에 문의하기 바란다.

의료지원

만일 호텔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프런트에 연락하기 바란다. 백스코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스코 바깥에 있는 일신병원 이동의료팀을 방문하기 바란다. 의료팀의 의사와 간호사가 도와줄 것이다. 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동의료팀이 근처 병원으로 이동시켜 줄 것이다.

이동의료팀은 부산의 일신병원에서 후원한다. 일신병원은 1952년 호주 선교사들이 설립한 곳으로 종합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독교 병원이며 한국에

서 산부인과, 신생아 치료, 조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www.ilsin.or.kr을 방문하기 바란다.

약국

호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호텔 프런트에 물어보기 바란다. (백스코 오토리움 길 건너편에 있는) 홈플러스 1층에 약국이 있다.

안전

부산은 안전한 도시이며 지역 경찰이 총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특별히 돌볼 것이다. 백스코 주변에서 거리를 건널 때는 항상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백스코에서 길 건너편 백화점으로 갈 때에는 지하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낮이나 밤에 인근 지역에서 돌아다닐 때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특히 밤에 혼자 걸어다니지 말기 바란다. 많은 돈을 몸에 지니고 다녀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와 여권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바란다. 지갑은 가슴 안쪽에 보관하고 포켓에 넣지 말기 바란다. 거리를 걸어다닐 때 값비싼 장신구나 시계를 착용하지 말기 바란다.

환전

공항에서 환전하지 않은 경우 호텔이나 백스코 지하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돈을 환전할 수 있다. 백스코 내의 자동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한국화폐를 인출할 수 있다.

인터넷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백스코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은 객실이나 로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와이파이 신호세기는 백스코의 마당 홀이 가장 강하다.

메시지

자신의 호텔 숙소에서 머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을 경우 호텔 프런트에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자신의 호텔에 머물지 않는 참가자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면 마당 홀의 안내데스크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는다. 안내데스크에는 메시지 게시판이 설치될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게시판에 있으면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고, 게시판에 이름이 없으면 전달될 메시지가 없다는 뜻이다.

사진촬영

백스코 마당 홀 인근에 사진관이 있다. 사진촬영이나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 사진관이나 투숙한 호텔의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기 바란다.

우체국

투숙한 호텔 프런트에서 편지와 엽서를 보낼 수 있다. 홈플러스 인근 센텀 큐 빌딩 1층에는 센텀시티 우체국이 있다.

전화

모든 통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브라질 텔레콤이 답을 제공한다. 브라질 텔레콤은 휴대폰, 유심카드를 판매하며 빌딩 41(우체국 바깥 1층)에 전화부스를 설치하고 있다.

여행 및 티켓 재확인

WCC가 참가자의 티켓을 랩티م 트래블(Raptim Travel)을 통해 구매한 경우, 마당 홀에 있는 랩티م 트래블에서 자신의 출발 정보를 재확인하기 바란다.

쇼핑

백스코 길 건너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비롯한 3개의 백화점이 있다. 해운대에도 쇼핑센터가 있다.

관광

리 컨벤션은 낮 관광과 다른 옵션의 관광 상품을 제공한다. 더 알기 원한다면 마당 홀에 있는 리 컨벤션 데스크를 방문하기 바란다.

WCC 서점과 카페

WCC 서점은 마당 홀 바로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서점뿐만 아니라 카페, 토론장도 있다. 서점에서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제휴하여 매우 다양한 WCC 출판물, 자료문서, 다른 출판사의 서적이 판매된다. 책을 구입하지 않고 살펴보려는 사람들도 환영한다. 또한 서점에서는 티셔츠, 펜, 머그잔 등 총회 기념품도 판매된다. 비용은 한국화폐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책 관련 행사와 저자 사인회에 관한 공지내용을 살펴보기 바란다.

WCC 전시회

WCC 전시회는 마당 홀 입구 근처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일치, 선교, 공적 증언, 봉사, 에큐메니칼 교육과 협력을 통한 WCC의 활동을 소개한다. 전시회장에서는 특별히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이후의 WCC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WCC 커뮤니케이션

WCC 커뮤니케이션 팀은 총회에 관한 소식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된 문서와 영상으로 매일 전달한다. 소식지, 인터뷰, 특집 기사와 사진이 전 세계에 배포되면 총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된다. 주제별 전체회의에 관한 실태 웹캐스트와 총회생활 모습을 담은 짧은 비디오 영상을 매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총회 문서는 전체회의 발표시간에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된다. 영어, 한국어, 기타 다른 언어로 제작된 총회 신문이 매일 아침에 배포된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총회 웹사이트 <http://wcc2013.info/en>을 방문하여 총회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받기 바란다.

WCC와 한국준비위원회 사무실

WCC와 한국준비위원회 사무실은 전시회장에 있는 2층과 3층 회의실에 있다. 96 쪽에서 사무실 위치 목록을 확인하기 바란다.

WCC 재정사무실

WCC 재정사무실은 전시회장 2층 258A(총회 준비사무실)에 있다.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는 재정사무실을 방문하여 납부하기 바란다. 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11시 45분, 오후 12시 30분-18시이며,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변경 사항은 사무실 문에 공지된다.

언론과 미디어

인쇄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전문가를 비롯하여 100명 이상의 국제적인 언론인과 수십 명의 국가별 통신원이 총회에 공식 승인을 받았다. 또한 WCC는 자체 언론팀을 운영한다. 이러한 모든 언론인은 총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일반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들이다. 언론인들이 인터뷰, 코멘트, 사진촬영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주기 바란다. 참가자의 메시지를 세계 곳곳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일반인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당 홀에 있는 WCC의 미디어홍보 사무실은 참가자가 미디어의 요구에 대응할 때 언제든지 지원한다. WCC 미디어홍보 사무실 직원들이 매일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과 브리핑, 총회의 라이브 스트리밍, 일일 신문, 비디오를 준비할 것이다.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WCC 미디어홍보 담당직원에게 즉시 연락하기 바란다.

목회상담과 연대 지원

국제 참가자 그룹들은 총회에서 목회 상담자로서 봉사하기로 동의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 중 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경우, 오디오룸 메인 출입구 근처 5번 사무실에서 목회상담팀을 찾으면 된다.

총회 『프로그램 안내』에는 <그리스도인의 연대가 깨어질 때>라는 정책 문서가 실려 있다. 이 문서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총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WCC 행사에서 “성회론과 모든 형태의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만일 이런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경우 오디토리움 메인 출입구 근처에 있는 5번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총회 개최 장소

벅스코에서 제공되는 활동과 서비스

활동과 서비스	위치
WCC 사무실	94쪽을 보라
간호실	오디토리움-6번 사무실
교파별 회의 장소	93쪽을 보라
기도(모임예배 및 보냄예배)	예배실
기도(아침)	예배실
기도(저녁)	예배실
대륙별 회의	94쪽을 보라
목회상담팀	오디토리움-5번 사무실
벅스코 주변 레스토랑	<i>Busan Now</i> 를 보라
비상전화 연락처 -경찰 -화재 -총회 비상 연락처	112 119 +82 51 711 0042
사진촬영(유료 서비스)	마당 홀 밖 벅스코
성경공부 그룹 모임 장소	91쪽을 보라
셔틀버스 탑승	벅스코 버스정류장
예규메니칼 좌담	92-93쪽을 보라
우체국	홈플러스 근처 센텀 큐 빌딩
워크숍	95-127쪽을 보라
위원회 회의 장소	92쪽을 보라
은행	벅스코 지하
의료지원	벅스코 밖 이동진료팀
전체회의(주제별)	오디토리움
전체회의(회무처리)	비즈니스 홀
중앙위원회 회의	비즈니스 홀
커피와 차	회의실 밖 복도
택시	가로변
합의제 절차 안내 테이블	비즈니스 홀

마당 흘

마당 전시회와 만남의 공간
액트 얼라이언스(ACT Alliance)
전아프리카교회협의회(All Africa Conference of Churches)
한국 주재 필리핀 이주노동자기구 연합(Alliance of Filipino Migrant Workers Organisations in Korea)
대한성공회-미술 전시회(Anglican Church in Korea-art exhibit)
기후정의를 위한 예술-미술전시회(Art for Climate Justice-art exhibit)
재활용 미술-미술 전시회(Art Recycled-art exhibit)
교파연합회(Association of Interchurch Families)
코차나 아틀리에-미술 전시회(Atelier Kochana-art exhibit)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부산 총회 준비위원회(Busan Host Committee)
부산 관광관(Busan Tourism Pavilion)
자카르타신학교 성역할 및 성문제 신학연구 및 사역센터(Centre for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in Theology and Ministry of Jakarta Theological Seminary)
에큐메니코스 연구소(Centro de Estudios Ecumenicos, A.C.)
어린이를 위한 공간-만남의 장소(Children's space-encounter space)
중국기독교협의회(China Christian Council)
비폭력을 위한 교회 네트워크(Churches' Network for Non-violence)
재난에 대응하는 교회: 일본,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Churches Responding to Disasters: Japan and Aotearoa New Zealand)
사이프러스 교회(Church of Cyprus)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기독교 피스메이커 팀(Christian Peacemaker Teams)
동면교회-조각상 전시(Dong Myeun Church-sculpture exhibit)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에큐메니칼 동행 프로그램-만남의 공간(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and Israel-encounter space)
에큐메니칼 연대연맹(Ecumenical Advocacy Alliance)
에큐메니칼 장애인연대네트워크-만남의 공간(Ecumenical Disabilities Advocacy Network space-encounter space)
에큐메니칼 의약품연합회(Ecumenical Pharmaceutical Networ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Ecumenical Training Centr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에큐메니칼 물 네트워크-푸른 정자와 오아시스(Ecumenical Water Network-The Blue Pavilion and Oasis)

마당 전시회와 만남의 공간
에큐메니칼 여성 그룹(Ecumenical Women's Group)
LGBT 기독교 단체 유럽 포럼(European Forum of LGBT Christian Groups)
독일교회연합세계선교회(Evangelisches Missionswerk in Deutschland, EMW)
글로벌기독교포럼(Global Christian Forum)
아동을 위한 글로벌 종교 네트워크(Gobal Network of Religions for Children)
Globethics.net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설치 미술(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art installation)
국제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필사한 성경(Handwritten Scripture)
원주민 공간—만남의 공간(Indigenous Peoples space—encounter space)
종교 간 만남을 위한 공간(Inn—SPIRE[Space for inter-religious encounter])
국제여성목회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Ministers)
종교자유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1923년 관동대지진 한일협회(1923 Kanto Korea-Japan Citizens' Association in Japan and Korea)
한국여성신학자협회(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Korean Host Committee for the WCC 10th Assembly)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by Japan for Military Sexual Slavery)
한국관광공사(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한국기독교연합회(Korean Christian Association Organisation)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Korean Christian Network for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한국교회 환경운동연합(Korea Church Environment Movement Solidarity)
한국종교인평화회의(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세계루터교연맹 및 비텐베르크센터(Lutheran World Federation and the LWF Center Wittenberg)
마당 홀 1, 2번 회의실(Madang Meeting Rooms 1 & 2)
신체장애-덴마크교회 구호기구—사진 전시(Maimed-DanChurchAid—photo exhibit)
오이쿠오메네 GPS(Oikoumene GPS—Medias-pro)
덴마크교회 지뢰 탐색 카펫(Mine Detection Carpet-DanChurchAid)
팔레스타인지역 기독교기구연합(National Coalition of Christian Organizations in Palestine)
한국장로교 여전도회(National Organisa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Women)
한국정교회 대교구(Orthodox Metropolis of Korea)
태평양지역 교회협의회(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

마당 전시회와 만남의 공간
정의와 평화를 그려라!-벽화(Painting Justice and Peace!-art mural)
평화열차위원회(Peace Train Committee)
공연무대-드라마, 음악, 문화공연(Performance stage-drama, music and cultural performances)
대만장로교회 청년사역위원회(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Youth Ministry Committee)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PROK] Peace Community Movement)
프레스센터-미디어 및 기자회견(Press centre-media and press conferences)
라디오 방송국(Radio station)
스위스베른-쾰라-졸로톤 지역 개혁교회(Reformed Church Bern-Jura-Solothurn/Switzerland)
등록-안내데스크(분실물 신고, 객실 예약, 비행기 확인)(Registration-information desk[including lost and found, room reservations, flight confirmation])
정의와 인간존엄을 위한 달리트와 함께하는 연대(Solidarity with Dalits for Justice and Dignity)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한걸음씩!(Lead us to Justice and Peace-Step by step!-labyrinth)
텔레비전 스튜디오(TV Studio)
성 정의를 위한 우물가-만남의 공간(UMULGA-SHe-Space for gender justice-encounter space)
유엔난민기구-사진 전시(UNHCR-The UN Refugee Agency-photo exhibit)
도시산업선교-한국(Urban Industrial Mission-COREA)
WCC 전시, 서점, 카페(기념품과 총회 신문 포함)(WCC Exhibit, Bookstore and Cafe[including souvenirs, assembly newspaper])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아산이주노동자센터(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re of Korea/Asan Migrant Workers Centre)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회(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세계의 십자가(색동감리교회)(World Crosses[Saekdong Methodist Church])
세계기독교학생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세계 YWCA(World YWCA)
청년: 정의와 평화 텐트-만남의 공간(Youth: Justice and Peace tent-encounter space)
그 외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개최한다.

총회 사전 대회

총회 사전 대회	위치	장소
WCC 실행위원회 회의	컨벤션 홀	104-105
여성과 남성의 공동체를 위한 사전 대회	컨벤션 홀	대연회실
청년 사전 대회	컨벤션 홀	205
원주민 사전 대회	컨벤션 홀	106-107
에큐메니칼 장애인연대네트워크(EDAN) 대회	컨벤션 홀	101-102

성경공부 그룹

성경공부 그룹	위치	장소
영어 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101
영어 성경공부 그룹 02	컨벤션 홀	102
영어 성경공부 그룹 03	컨벤션 홀	103
영어 성경공부 그룹 04	컨벤션 홀	104
영어 성경공부 그룹 05	컨벤션 홀	105
영어 성경공부 그룹 06	컨벤션 홀	106
영어 성경공부 그룹 07	컨벤션 홀	107
영어 성경공부 그룹 08	컨벤션 홀	108
영어 성경공부 그룹 09	컨벤션 홀	109
영어 성경공부 그룹 10	컨벤션 홀	110
영어 성경공부 그룹 11	컨벤션 홀	206
영어 성경공부 그룹 12	컨벤션 홀	207
영어 성경공부 그룹 13	컨벤션 홀	208
프랑스어 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201
프랑스어 성경공부 그룹 02	컨벤션 홀	202
스페인어 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203
독일어 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204
인도네시아어 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205
한국어 성경공부 그룹 전체	컨벤션 홀	대연회실
영어 성경공부 그룹 전체	예배실	

총회 위원회

위원회	위치	장소
실무위원회	비즈니스 홀	
공공쟁점처리위원회	회의실	315
인선위원회	회의실	316
메시지위원회	회의실	317
재정위원회	회의실	311
정책검토위원회	회의실	312
프로그램지침위원회	회의실	313
예배기획위원회	총회 준비 사무실	254a

에큐메니칼 좌담

에큐메니칼 좌담		위치	장소
좌담-01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다: 새로운 에큐메니칼 전망	컨벤션 홀	205
좌담-02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컨벤션 홀	102
좌담-03	갱신으로 변혁되어: 성경적 근원과 에큐메니칼 관점	컨벤션 홀	206
좌담-04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도덕적 분별	컨벤션 홀	103
좌담-05	우리가 함께 지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	컨벤션 홀	104
좌담-06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하기: 상황적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신학교육	컨벤션 홀	105
좌담-07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	비즈니스 홀	*
좌담-08	오늘날의 복음주의: 진정한 제자도를 향한 새로운 길	컨벤션 홀	106
좌담-09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공동체: 상호 인정과 변혁적 정의	컨벤션 홀	107
좌담-10	다종교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적 자기 정체성 탐색하기	컨벤션 홀	108
좌담-11	정의롭고 포용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주변부화된 이들과 연대하기	컨벤션 홀	109
좌담-12	기후변화에 직면한 생태 정의와 평화로 부름받음	컨벤션 홀	110
좌담-13	생명의 경제: 빈곤의 근절을 위한 탐욕의 극복	오디토리움	**
좌담-14	인간 안보: 정의와 인권과 더불어 평화 유지하기	컨벤션 홀	201
좌담-15	정의로운 평화의 길: 함께 평화 건설하기	컨벤션 홀	207
좌담-16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함께 일하는 종교들	컨벤션 홀	202
좌담-17	한반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연대	컨벤션 홀	대연회실 ***

에큐메니칼 좌담		위치	장소
좌담-18	“중동”: 누구의 정의, 무슨 평화?	컨벤션 홀	203
좌담-19	아동 권익을 위한 교회의 연대활동	컨벤션 홀	208
좌담-20	에큐메니칼 건강과 치유목회	컨벤션 홀	204
좌담-21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봉사와 개발	컨벤션 홀	101

제공되는 언어

* 영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스페인어

**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 영어, 독일어, 한국어

교파별 회의

교파	위치	장소
아프리카독립교회(African Instituted)	컨벤션 홀	202
성공회(Anglican)	컨벤션 홀	201
침례교회(Baptist)	컨벤션 홀	203
형제교회(Brethren)	컨벤션 홀	104
사도교회(Disciples)	컨벤션 홀	204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컨벤션 홀	102
퀘이커교회(Friends)	컨벤션 홀	101
루터교회(Lutheran)	컨벤션 홀	대연회실
성 도마교회(Mar Thoma)	컨벤션 홀	107
메노나이트교회(Mennonites)	컨벤션 홀	109
감리교회(Methodist)	비즈니스 홀	
모라비안교회(Moravian)	컨벤션 홀	103
구 가톨릭교회(Old Catholic)	컨벤션 홀	105
정교회(Orthodox)	컨벤션 홀	205
오순절교회(Pentecostal)	컨벤션 홀	106
개혁교회(Reformed)	오디토리움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컨벤션 홀	108

대륙별 회의

대륙	위치	장소
아프리카	컨벤션 홀	대연회실
아시아	오디토리움	
카리브해	컨벤션 홀	201
유럽	비즈니스 홀	
라틴아메리카	컨벤션 홀	202
중동	컨벤션 홀	203
북아메리카	컨벤션 홀	205
태평양	컨벤션 홀	204

사무실

사무실	위치	장소
총회 사무실	회의실	355
부산 총회 준비위원회	마당 홀	
커뮤니케이션	회의실	211-212
문서작업	회의실	213
재정	총회 준비사무실	258a
총별 관리	총회 준비사무실	262a
안내센터	마당 홀	
정보기술	총회 준비사무실	264
한국준비위원회	회의실	217
리 컨벤션(Lee Convention)	회의실	216
마당 사무실	총회 준비사무실	258b
회의실 관리	총회 준비사무실	252
목회상담	오디토리움	Office 5
전체회의 준비	오디토리움	관리자 사무실
진행요원	오디토리움	탈의실
자원봉사자	회의실	218
WCC 총무 사무실	회의실	314
WCC 직원 사무실	회의실	214-215
예배 사무실	총회 준비사무실	254a

마당 워크숍

워크숍과 부대행사 설명 및 개최 장소 안내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시간: 14시 15분-15시 45분

세계 오순절교회운동의 다양한 모습(WS101)

주최: 국제오순절성결교회

장소: 컨벤션 홀 101호

프로그램 소개: 세계 오순절교회운동에 관련된 대중매체의 헤드라인은 사람들로 부터 자주 오해를 받는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세계 곳곳의 오순절교회 신자들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기도를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중국, 가나, 칠레지역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당장 기후변화를 중지하라! 사람들의 환경과 생활을 구하라!(WS111)

주최: 3개 대륙의 교회연합단체인 연합복음선교회

장소: 컨벤션 홀 102호

프로그램 소개: 2008년 이후 연합복음선교회의 회원 교회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환경보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왔다. 연합복음선교회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지역 교회들은 상황중심적 창조신학과 영성을 발전시키거나 재발견해왔다. 아울러 에큐메니칼 팀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 환경파괴,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이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이 워크숍은 이런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

세계화의 위협과 도전(WS119)

주최: 유럽교회협의회와 라틴아메리카교회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103호

프로그램 소개: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은 최근 에큐메니칼 의제 중 매우 논쟁적인 주제로 등장했다. 유럽교회협의회와 라틴아메리카교회협의회는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 대륙의 경험, 관심사, 참여에 기초하여 세계화의 위협과 도전을 다루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 이 워크숍은 2009-12년의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교회의 공동의 여정을 참가자들에게 증언한다. 이 워크숍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현실, 대화의 난점과 중요한 순간들, 아울러 신뢰구축과 대화과정의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아시아지역 그리스도인 소수자와 종교 간 대화: 한계선상의 삶(WS130)

주최: 워싱턴신학자연맹

장소: 컨벤션 홀 104호

프로그램 소개: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인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이런 소수자로서의 지위는 특히 종교적 근본주의가 부활하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지만, 반면 생명에 관한 종교 간 대화와 삶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워크숍은 먼저 소수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생활을 살펴본다. 그 다음 종교적 근본주의가 증가하는 지역에 있는 종교적 소수자라는 의제를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수와 공동체가 생명을 향한 공동의 여정에 관한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본다.

민간 부문을 바꾸는 방법(WS135)

주최: 네덜란드기독교봉사원조기구

장소: 컨벤션 홀 105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지도원칙(UNGPs)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민간 부문과 함께 일하거나 이 일에 관심을 가진 대표자들 사이에 대화를 촉진할 것이다.

동방정교회의 선교신학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세계의 요구(WS162)

주최: 불로스신학연구아카데미

장소: 컨벤션 홀 106호

프로그램 소개: 불로스신학연구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이 워크숍의 목적은 현재 세계와 에큐메니칼 상황에서 동방정교회 선교신학의 중요한 내용을 토론하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동방정교회 신학의 새로운 추세를 소개하고, 이 추세에 나타난 에큐메니칼 운동과 목회의 역학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저항과 연대의 영성: 제국주의가 없는 세계(WS167)

주최: 생명을 위한 평화, 오이코트리(Oikotree), 필리핀교회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107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지정학적 전개 양상과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룩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도전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점점 격화되는 수많은 외침은 제국주의로 하여금 침체하는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군사주의와 전쟁을 더 강화하라고 밀어붙인다. 즉 중동지역에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는 아시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의무는 세계의 헤게모니와 가부장적 지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정의와 생명의 명령에 기초한, 생명을 살리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연대를 형성하고, 서로에게서 힘을 끌어내고 용기를 키우고, 분석, 강의, 권리옹호 운동, 조직 동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종교 사회인 유럽에서 사는 법 배우기(WS169)

주최: 아르메니아정교회, 교구청

장소: 컨벤션 홀 108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종교간 배움을 위한 유럽 프로젝트가 기독교 여성들이 다양한 종교전통을 가진 여성들과 함께 문화적·사회적·종교적 차이, 특히 함께 살아갈 때 긴장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이를 다루는 교육방법론을 어떻게 선구적으로 개발했는지를 다룬다. 이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문화, 또 그들의 정체성이 생명과 신앙에 관한 다양한 역사와 가정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세계 기독교와 에큐메니칼 문화(WS174)

주최: 글로벌기독교포럼

장소: 컨벤션 홀 109호

프로그램 소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은 세계의 남쪽과 동쪽으로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4명 중 1명은 오순절교회 또는 은사주의 교회에 속한다. 우리는 서구 기독교 이후의 시대, 비서구권 기독교의 극적인 성장을 목격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에 등장하는 교파들은 지역, 신학, 제도, 세대 면에서 새롭다. 이런 양상은 기독교의 일치 추구라는 목표에 중대한 과제를 제기한다. 이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런 새로운 추세가 WCC, 글로벌기독교포럼, 그 이외 다른 에큐메니칼 운동에 주는 의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세계 개발목표에 대한 에큐메니칼 관점(WS181)

주최: 브레드 포 올(Bread for All)

장소: 컨벤션 홀 110호

프로그램 소개: 20년 동안 이 국제 공동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왔지만 그 결과는 변변치 않았다.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 2015년 이후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대체하기 위해 무엇을 전체적인 목표로 설정할지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 워크숍에서 제기하고 탐구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다. 이를테면, 에큐메니칼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이란 무슨 뜻인가? 교회와 원조 기구들은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다원적인 미래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유엔의 세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화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개발목표가 있는가?

하나님의 독백(WS182)

주최: 캐나다연합교회

장소: 컨벤션 홀 201호

프로그램 소개: 교회 밖의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캐나다연합교회가 재정을 후원한 연구에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지만 제도 종교 밖에서 그들의 영성을 표현하는 400명 이상의 캐나다 청년들의 진술을 모았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이 진술을 원고로 교정하고, 개인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이 원고를 이용해 연극과 비디오를 만들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정리하며, 몇 가지 비디오 영상물을 보여준다.

세계의 인종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원주민들과 동행하기(WS208)

주최: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캐나다 원주민활동 프로그램

장소: 컨벤션 홀 202호

프로그램 소개: 2012년 WCC 중앙위원회는 세계 곳곳의 원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발견주의 원칙(Doctrine of Discovery)에 관한 일련의 법률과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2009년 이후 WCC의 많은 회원 교회는 발견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원주민과의 우정을 보여주었다. 이 워크숍은 세계 곳곳의 원주민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이 원칙의 영향을 보여준다. 아울러 WCC와 회원 교회들이 여러 세대 동안 야만적인 인종차별주의를 강화하는 법률과 정책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 원주민들과 어떻게 연대했는지를 살펴본다.

신앙언어의 치유력(WS195)

주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203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언어의 힘을 통해 어떻게 치유선교가 이루어지고 환대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신앙 언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유한다. 참가자들은 폭넓은 언어를 환영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살펴

본다. 이 워크숍은 치유, 온전함과 같은 선교사역에서 신앙언어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 교회가 환영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공한다.

아시아 신학교육: 투쟁하는 삶 속에서의 에큐메니칼 만남(WS215)

주최: 아시아신학교육포럼

장소: 마당 회의실 1

프로그램 소개: 아시아신학교육포럼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별·지역별 신학대학협회를 위한 에큐메니칼 강단이다. 아시아신학교육포럼은 아시아 상황신학, 신분계급, 성, 원주민 문제, 아울러 다양한 교파나 국가들 간의 신학교육 학위의 품질보증, 승인과 인정에 관한 대화를 촉진한다. 이 워크숍은 2010년 이후 개최된 세 차례의 AFTE의 결과와, 특히 2013년 한국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 신학교육기관협의회(WOCATI)와의 연합 컨퍼런스의 결과를 소개하고, 아시아지역의 신학교육에 관한 더 많은 네트워킹을 요청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소망을 품고 함께 걷기(WS237)

주최: 노르웨이교회 구호기구, 노르웨이교회

장소: 컨벤션 홀 205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행 프로그램(EAPPI)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분쟁 문제에 대해 보호와 지지활동을 통해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참여한 세계 곳곳의 교회에게 얼마나 유용한 도구였는지를 제시한다. 이 워크숍은 에큐메니칼 동행자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 줄이거나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지활동을 통해 교회들이 두 나라의 갈등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려준다.

불안한 물: 갈등상황에 놓인 공동체와 동행하기(WS238)

주최: 에큐메니칼 물 네트워크

장소: 컨벤션 홀 206호

프로그램 소개: 고대로부터 물은 삶과 문명의 성장에 매우 중요했으며, 번영의 원

천이자 표지였기 때문에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 창세기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기술한다(창 26:12-22). 오늘날에는 인구 증가, 생활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때문에 물, 토지, 다른 자연자원에 관한 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물의 공급원이 메마르거나, 오염되거나, 갈등의 근원과 경쟁의 대상이 될 때 생명과 생활이 가장 위협에 처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찾기만 한다면 물은 사람들을 묶어주는 힘이며, 물 분쟁은 희망의 표지로 바뀔 수도 있다. 이 워크숍은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생명을 긍정하는 공동체(WS243)

주최: 세계선교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207호

프로그램 소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교회의 삶과 증언을 통해 구체화된다. 지역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수행할 수 있을까? 세계선교협의회는 회원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회중을 육성하고, 회원 교회를 삶을 긍정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활동한다. 삶을 긍정하는 공동체란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연대와 예언자적 증언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희망의 영성을 통해 유지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총회 주제와 WCC의 새로운 확신, 곧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선교와 복음 전도에 응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과 수단을 소개한다.

국악예배 소개와과 에큐메니칼 영성 연대(WS249)

주최: 향린교회

장소: 컨벤션 홀 대연회실

프로그램 소개: 향린교회(1953년 창립)는 20년 동안 예배 때 한국 전통음악을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독특한 교회이다. 향린교회는 236곡의 전통음악 찬송가를 담은 책을 출판했고, 한국의 전통악기를 이용하여 예배를 드려왔다. 이 위

크숍은 참가자들에게 한국 고유의 곡조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소개한다. 아울러 향린교회는 에큐메니칼 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예배에서 이런 영성을 배우고 해석하여 적용하기를 바란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교회(WS252)

주최: 한국YWCA연합회

장소: 비지니스 홀

프로그램 소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워크숍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한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웃 종교와의 공존(WS253)

주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장소: 컨벤션 홀 208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지난 200년 동안 한국의 개신교가 설립되어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개신교가 한국의 전통종교와 협력하고 공존해온 과정을 탐구한다.

하나의 세례(WS268)

주최: 세계침례교연맹

장소: 마당 회의실 2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하나의 세례: 상호 인정을 향하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제기한 논의를 심화한다. 하나의 세례는 세례와 교회론 인식에 관한 상호 인정과 그것을 온전히 실천한 결과, 그런 인정을 방해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서로 연관된 질문들을 제기한다.

세계화와 보편성(WS273)

주최: 네덜란드 구 가톨릭교회

장소: 컨벤션 홀 204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세계화와 보편성에 관한 국제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니케아 신조에 명시된 교회의 특징이 의미하는 바를 세계화라는 배경을 고려하면서 탐구한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사도적 교회란 지속적으로 세계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인가? 이 워크숍의 목적은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공유하고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화요일 시간: 14시 15분-15시 45분

생명의 하나님의 재발견: 투쟁하는 공동체와의 깊은 연대(WS113)

주최: 인도교회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101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밀바다 현실에서 투쟁하는 공동체의 실제 상황과 성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워크숍에서는 카시미르 주의 소수집단과 배척당한 공동체, 인도 오리사 주의 한국 기업(포스코)의 광산개발계획에 반대하는 투쟁, 인도 쿠단쿨람의 러시아 합작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에큐메니칼 대화: 합의를 추구할 것인가? 여러 신학을 화해시킬 것인가? (WS133)

주최: 요한-아담-뮐러 에큐메닉스연구소

장소: 컨벤션 홀 102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지난 10년 동안 교회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결과와 방법을 숙고한다. *Growth in Agreement* 4권과 이 책의 독일어판 편집자들은 이 책에 담긴 신학적 대화의 결과에 대한 통찰을 공유한다. 이것은 에큐메니칼 대

화의 방법과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성찰에 자극을 제공할 것이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교회 간 대화를 위한 신학적 과제의 타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신앙과 직제 위원회의 과제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화해, 종교적 갈등, 종교적 자유(WS137)

주최: 국제종교자유연구소

장소: 컨벤션 홀 103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여러 종교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공동선과 종교적 자유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갈등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특히 종교가 갈등의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의 폭력 갈등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볼 때 화해, 정의, 배상이 도전과제이다. 심지어 종교적 자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도 종교 간 협력을 정의하고 옹호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자와의 대화를 통해 특정 종교 지지자나 무신론자들이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열린 공적인 공간이 공동선을 위해 유익하다는 공동의 확신이 필요하다.

성(Sexuality)에 관한 대화(WS148)

주최: 네덜란드기독교봉사원조기구

장소: 컨벤션 홀 104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의 목적은 성적 취향과 성경적 해석에 대하여 다양한 교파의 교역자들 간에 공통적인 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또한 인권, 동성애 혐오, 성 전환 혐오, 차별, 증오범죄, 가부장제, 그리고 문화, 전통, 배경, 인종, 성의 차이에 관한 신앙과 성의 교차점에서 대화를 통해 씨름하는 것이다. 어떤 점을 합의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다른가? 우리는 성과 성적 취향에 관한 성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이 매우 다름에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학대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통의 기초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가? 성적 소수자, 그들의 부모,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문서와 개인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 깊은 고통의 공유, 침묵의 의미나 폭력의 용인을 조명할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와 폭력 방지에 대한 책임(WS160)

주최: 브레드 포 더 월드

장소: 컨벤션 홀 105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 예방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 평화활동가들은 많은 사례에서 갈등이 폭력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예방해왔다. 아울러 “보호책임”의 한 부분으로서의 “예방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토론은 정제된 듯하다. 전 세계의 여러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활동가들의 경험이 국제적인 토론에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이슬람교 간의 복잡한 관계(WS161)

주최: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무슬림 관계개선 프로그램

장소: 컨벤션 홀 206호

프로그램 소개: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이슬람교의 관계는 그들의 전통과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역학관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현상이다. 이 워크숍은 이런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널리 알려진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폭력적인 갈등을 소개한다.

버마의 정의로운 평화(WS183)

주최: 미국침례교회

장소: 컨벤션 홀 107호

프로그램 소개: 버마(지금의 미얀마)는 1948년에 독립한 후, 수많은 소수민족들 간의 긴 내전에 휘말렸다. 이 내전은 인종학살, 체계적인 강간, 아동착취, 노예, 인간 밀매, 언론과 종교의 자유 탄압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되었다. 지금도 카친 주, 아라칸 주의 로힝가스, 샨족, 라후족, 카렌족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워크숍은 갈등의 뿌리와, 원주민 그리스도인들의 평화운동에 대한 기여, 미얀마에서 정의로운 평화운동을 펼치는 국제단체의 역할을 살펴본다.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인가? 새로운 원자력 시대인가?(WS186)

주최: 에큐메니칼 공동 역량개발

장소: 컨벤션 홀 108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원자력 발전이 정치적·생태적 정의, 세대 간 정의, 평화 건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워크숍은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공론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하나가 되는 꿈(WS201)

주최: 필리핀침례교회와 스웨덴교회

장소: 컨벤션 홀 109호

프로그램 소개: 일치를 함께 꿈꾸자! 일치는 어떤 모습일까?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 일치를 이루기 위해 평화가 필요한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치가 필요한가? 일상생활의 장벽을 넘어 생각하고 꿈을 키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라! 이 워크숍의 일부 내용은 스웨덴 전역의 수많은 교회에서 사용되어 교회 내와 교회 간의 일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비전을 불러일으켰다.

매체!(WS244)

주최: 성 도마교회

장소: 컨벤션 홀 110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총회의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매체를 포함하여) 매체를 사용하는 것과, 신앙 공동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이슈, 정의와 평화에 관한 중요한 성찰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교회 권위의 근거는 무엇인가?(WS218)

주최: 러시아정교회

장소: 컨벤션 홀 201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교회 전통에서 다양한 권위에 대한 근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몇 가지 연구결과를 나눈다. 우리는 권위의 근거에 대해 항상 정확하게

말해왔는가? 전통적인 근거는 여전히 권위가 있는가? 예를 들어, 과학적인 지식이 새로운 근거인가? 아니면 경험, 위계질서, 교도권, 땅, 성령인가?

통합적 발전과 경제적 연대(WS227)

주최: 에큐메니칼 학술연대, 콘솔 대안정치연구소

장소: 컨벤션 홀 202호

프로그램 소개: 세계화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특히 경제생활 정신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이 워크숍은 브라질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탐구한다.

총성이 멎었다: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WS233)

주최: 우간다연합기독교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203호

프로그램 소개: 우간다정부는 카라모자 패스토랄리스트 지역에서 무장해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본래 전사였던 청년들은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평화활동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지역 정부에 전달하고, 평화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이유는 자녀와 남편이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찾지 못한다면,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워크숍은 평범한 농촌 여성들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획득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한 공동협력(WS235)

주최: 독일중부 복음교회의 에큐메니칼 센터(환경개발부)

장소: 비지니스 홀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유럽 5개 국가 7개 교파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관리, 획득, 환경을 고려한 지역 사회 설계 분야에서) 창조세계의 보전활동을 탐구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여러 국가의 교회들이 도시환경 사업 분야에서 수행한

에큐메니칼 협력의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21세기에서 세대 간 파트너십과 에큐메니즘(WS242)

주최: 세계기독교학생연맹

장소: 컨벤션 홀 대연화실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청년, 교역자, 그리고 세대 통합 공동체를 추구하는 모범적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21세기 에큐메니즘을 향한 여러 세대의 열망을 알아본다.

호주의 난민: 에큐메니칼 학습(1945-2013년) (WS103)

주최: 호주성공회 멜버른교구

장소: 컨벤션 홀 206호

프로그램 소개: WCC가 창립된 이래 호주는 여러 차례 난민과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호주의 얼굴을 바꾸었다. 이 워크숍은 멜버른 소재의 세인트 로렌스 형제 에큐메니칼 이주센터의 특별한 관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이 배움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와 난민의 모국에서 파견한 WCC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 주제는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화해를 통한 평화(WS248)

주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장소: 컨벤션 홀 205호

프로그램 소개: 1989년 창립된 이래로 “고난함께”는 한반도의 분단을 초월하여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화해사역을 계속해왔다. 이 워크숍에서 “고난함께”는 최근 20년 동안의 사역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이전의 장기양심수와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명을 향상하는 문화를 위한 대안적 신학교육(WS254)

주최: 한국오이코스신학운동

장소: 컨벤션 홀 208호

프로그램 소개: 오늘날의 글로벌 위기는 경제, 생태, 사회, 정치, 문화, 가치의 위기를 망라한다. 오이코스신학운동은 전통적인 신학의 틀이 오늘날의 총체적 글로벌 위기, 특히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워크숍은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와 아시아의 상생 개념과 같은 관계 중심적 우주관에 기초한 신학교육을 위한 새롭고 대안적인 틀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아시아 이주의 여성화(WS256)

주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장소: 컨벤션 홀 207호

프로그램 소개: 세계화 시대에 이주의 여성화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만 약 70%의 이주민이 여성이다. 여성 이주는 많은 이주민의 인권이 도착지 국가에서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워크숍은 이주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여성신학의 관점과 정의, 평화, 생명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생명을 위해 투쟁하는 신학들의 대화: 새로운 에큐메니즘을 향하여(WS260)

주최: 비숍칼리지

장소: 마당 회의실 1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생명의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생명과 존엄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대안적인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에큐메니즘의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 원주민, 그리고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신학들이 제시하는 네 가지 신학적 목소리를 공유한다.

원자력 발전에서 해방된 생명(WS272)

주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장소: 컨벤션 홀 204호

프로그램 소개: 일본과 한국의 원자로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국가에 있기 때문에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통제되지 않는 핵무기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일본, 한국, 대만의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가 없는 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원자력 시설이 없는 세상을 위한 신학적·일반적 평화 담론을 발전시키고, 유사한 문제에 관련된 기존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행동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생태정의(WS274)

주최: 요르단과 성지의 복음적 루터교회 환경교육센터

장소: 마당 회의실 2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과 자연환경의 보호와 신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강연자들은 점령에 따른 일상적인 불의와 성지의 중요한 환경조건에 대해 말한다. 물 부족, 고체 폐기물관리 문제, 식량 주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매우 긴박한 문제이다. 워크숍은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경제적·문화적·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룸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생태정의에 대해 알려주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논의하도록 촉진한다.

2013년 11월 6일, 수요일 시간: 14시 15분-15시 45분

탐욕과의 싸움: 정의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WS102)

주최: 정교회 크레타아카데미

장소: 컨벤션 홀 101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정의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자연을 약탈하고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 탐욕—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빈곤, 부, 자연생태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처음으로 개인의 탐욕지수를 측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민중을 위한 생명, 정의 평화에 대한 질문(WS105)

주최: 달리트/하층계급 연구센터, 한국민중신학회

장소: 컨벤션 홀 102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총회 주제인 “정의, 평화, 생명”을 달리트와 민중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신학적 성찰을 탐구한다. 워크숍은 모든 분야—사회, 종교, 경제, 정치—에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 억압받는 공동체를 위한 정의가 신학적 성찰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라비아 만의 이주노동자 문제(WS108)

주최: 걸프지역 YMCA

장소: 컨벤션 홀 103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아라비아 만의 이주노동자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식을 다룬다.

정의로운 평화의 향상: 생명을 살리는 농업(WS117)

주최: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104호

프로그램 소개: 인간의 욕망은 과잉생산, 과소비, 남용을 유발하여 글로벌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종래의 농업은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화학비료를 이용하는 집단적인 농업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농업방식은 식품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생태적 안전에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농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유지하시는 지속가능한 지구 생명 공동체를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확신한다. 아시아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적 농업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다. 이 워크숍은 그들의 활동을 살펴본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듣기(WS122)

주최: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회

장소: 컨벤션 홀 105호

프로그램 소개: 참가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약탈당한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발표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특히 교회가 사람들의 존엄과 공동체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조명한다. 주요 발표주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열망과 필요를 표현하는 능력을 획득한 경험, 여성들의 목소리를 강화한 경험을 나누고, 대중매체의 민주화, 사회적 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다.

글로벌 카이로스: 정의, 평화, 생명(WS134)

주최: 오이코트리운동

장소: 컨벤션 홀 106호

프로그램 소개: 모든 생명체는 지속할 수 없는 개발에 기초한 파괴적인 인간 문명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 에큐메니칼 공동체,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평화, 정의에 대한 예언자적·신학적 증언을 통해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에 응답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워크숍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가능한 생명 공

동체, 문화, 경제체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종교 간 에큐메니칼 연대 공간을 제공한다.

무기 거래! 공정 거래?(WS140)

주최: 스웨덴기독교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107호

프로그램 소개: 예테보리 프로세스(Gothenburg Process)는 무기 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윤리적 문제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회들이 무기 거래에 대한 공론화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4개 교파와 기독교 단체가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무기 거래의 윤리적 의미와 그것이 기독교 윤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논의한다.

하나님의 농사 방식과 음식 쓰레기 줄이기(WS143)

주최: 에큐메니칼연대연맹

장소: 컨벤션 홀 108호

프로그램 소개: 반복되는 식량위기, 기후변화의 영향, 세계 인구의 증가에 직면한 가운데 약 10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세계에서 엄청난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이 워크숍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과 소비라는 과제를 기독교적 청지기직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룬다. 또한 소규모 자작농에 기초한 “보전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교회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생태학”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한다. 워크숍은 과학과 윤리학에 기초하여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일반적인 산업적 단작물 경작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현재의 터무니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식 쓰레기 수준을 먼저 줄일 것을 강조한다.

치유와 화해: 교회 선교의 필수적인 영역(WS145)

주최: 건강과 치유에 관한 DIFAEM 전략그룹

장소: 컨벤션 홀 109호

프로그램 소개: 오늘날 놀라울 정도로 불평등한 건강과 갈등 상황에서 교회는 치유와 화해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매일 수만 명의 남성, 여성, 아이들이 처치나 치

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현장에서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으며 돌봄과 동반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독교적 치유와 화해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천하며, 아울러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와 화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건강, 치유, 화해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콩고와 말라위공화국의 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생태 정의를 위한 언약(WS158)

주최: 복음선교연대, 개신교회/개신교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장소: 컨벤션 홀 110호

프로그램 소개: 생태 정의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충만한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생활방식과 생존전략이나 경제제도에 대한 헌신, 가난과의 전쟁, 사회정의와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은 정의와 평화로 가는 단계들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측면에서 갈등—북반구와 남반구 지역 내와 사이에—이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 여러 지역의 교회들 간의 직접적인 에큐메니칼 파트너십은 이런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아주 적절하다. 교회 내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워크숍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Gender)과 종교 간 대화(WS172)

주최: 영국성공회

장소: 컨벤션 홀 201호

프로그램 소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당했다. 때로 타종교전통에서 여성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 동료들, 심지어 여성 자신들이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의 문제는 종교 간 대화에서 자주 외면당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일부 남성들과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을 제시하고, 여성의 종교 간

대화 참여 사례연구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하나님은 지구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WS176)

주최: 기독교 신앙과 지구 프로젝트

장소: 컨벤션 홀 202호

프로그램 소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에큐메니칼 논의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연결된다. 창조신학은 정확히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가?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창조 방법, 창조 대상, 창조 주체 또는 창조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가? 창조라는 단어는 세계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는 세계에 대한 다른 묘사, 예를 들어 아름다운 조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것, 부동산 또는 지고한 어떤 것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소외된 사람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통전적인 협력(WS194)

주최: 에티오피아복음교회

장소: 컨벤션 홀 203호

프로그램 소개: 에티오피아 메카니 예수(Mekane Yesu) 복음교회는 오랫동안 다양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 교회는 이런 경험을 통해 상황화, 능력개발, 지역 지도력에 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이 소수 집단과 소외 집단을 배제한 채 계속되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교회와 핀란드복음루터선교회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실천적 학습과정에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양 교회의 협력에는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차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 이 워크숍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미소금융과 가난 퇴치(WS205)

주최: 국제에큐메니칼교회용자기구

장소: 컨벤션 홀 204호

프로그램 소개: 가난 퇴치는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정의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충분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노력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끝날 줄 모르는 도전 속에서 미소금융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입증된 수단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번 총회에서 빛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인도해주시길 요청한다. 이 워크숍은 총회 참석자들이 국제에큐메니칼교회용자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미소금융이 가난 퇴치에 기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이다: 이주민을 위한 정의(WS188)

주최: 덴마크교회 구호기구

장소: 컨벤션 홀 206호

프로그램 소개: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의 이주노동자를 1억 500만 명으로 추정한다(2010년). 일반적인 이주노동자는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 출신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며 극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은 고향에서 중간 지역을 거쳐 최종 목적지 국가에 이르는 이동경로에 존재하는 정부당국에 특히 취약하다. 이 워크숍은 8개 아시아 및 걸프만 국가들의 20개 파트너들과 함께 5년간 시행한 안전한 이주지역 프로그램의 사례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을 논의한다.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한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주민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떤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가? 효과적인 지원과 권리옹호운동을 더 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과 인권을 위한 교회: 도전과 기회(WS239)

주최: 에큐메니칼 물 네트워크

장소: 컨벤션 홀 207호

프로그램 소개: 전 세계의 교회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에 대한 옹호를 포

함하여 꾀박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교회의 인권운동의 신학적 기초와 실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 워크숍은 에큐메니칼 운동, 특히 에큐메니칼 물 네트워크의 경험이 주는 일반적인 교훈을 알아본다. 또한 교회와 다른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이 인간의 권리라는 국제적인 인식을 지지한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아울러 물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제 이런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에서 국가와 지역 차원의 실천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교회와 협력단체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와 기회를 살펴본다.

한국교회와 세계선교(WS250)

주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장소: 오디토리움

프로그램 소개: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1912년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었을 때 안수받은 7명의 목사 중 1명을 중국 산둥지방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선교는 한국교회의 초창기부터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요소였다. 이 워크숍은 현재 한국의 세계선교 상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협력선교는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예이다. 과거 중국 산둥지방에 대한 선교는 최초의 협력선교였다. 가장 최근의 협력선교 사례는 한국-가나-독일이 협력하여 선교한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섬들 간의 연대(WS257)

주최: 프런티어스, 세이브 아워 시스(The Frontiers, Save Our Seas)

장소: 컨벤션 홀 208호

프로그램 소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주로 미군에 의한 군사력 팽창과 군사화가 세계 도처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많은 섬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오키나와, 하와이, 디에고 가르시아, 스프라틀리 섬, 포클랜드 섬, 제주도 등과 같은 많은 섬에 갈등과 고통을 유발시켰다. 이 워크숍은 현재 진행 중인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비에쿠에스(푸에르토리코), 필리핀, 올란드(핀란드)에 거주하

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파괴적인 군사기지를 제거하거나 비군사화하는 데 성공한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는 취약한 섬들과 그곳의 거주민들 간의 연대를 발전시켜 그들의 땅, 문화, 전통을 보호하고, 아울러 평화와 정의로운 삶을 위한 공통의 힘과 자원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세이프 톨키트 훈련(WS258)

주최: 에이즈(AIDS)에 걸린 종교지도자국제네트워크

장소: 컨벤션 홀 대연회실

프로그램 소개: 이 단체는 종래의 “ABC” 모델에 대응하여 HIV 예방, 인식 제고, 교육을 위한 세이프(SAFE) 방법을 개발했다. 이 워크숍은 세이프 예방방법이 “ABC” 원리를 통합하면서도 HIV 전염과 예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HIV 보건자들을 지원하고 돌보며, 아울러 HIV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거부, 낙인, 차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써 HIV 전염을 예방하는 보다 통합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갈등을 넘어서(WS263)

주최: 스리랑카교회협의회

장소: 마당 회의실 1

프로그램 소개: 2009년 타밀엘람 해방 호랑이(스리랑카 반군단체)의 군사적 패배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상징했다. 전쟁 후에는 도전, 기회, 장애물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워크숍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타난 정의, 평화, 화해, 치유의 문제를 소개한다. 또한 교회협의회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공동체와 종교 간 접근과 전략을 이용하여 모든 민족 공동체—신할라, 타밀, 무슬림—와 함께 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 경험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평화를 인간의 권리로 보는 유엔의 인식(WS265)

주최: 스페인국제인권법학회

장소: 컨벤션 홀 205호

프로그램 소개: 2012년 7월 5일, 인권위원회는 “평화권의 촉진”에 관한 20/15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평화권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가 수행한 중요한 활동, 이런 문제에 대한 그들의 중요한 기여를 환영하면서 개방적인 실무 그룹을 설립했다. 이 실무 그룹의 과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에 기초하고, 평화권과 관련된 과거·현재·미래의 관점과 제안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평화권에 대한 유엔 선언 초안을 점진적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인간의 평화권을 성문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청년 실업과 가난의 극복(WS270)

주최: 한국에큐메니칼청년협의회

장소: 비즈니스 홀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엄청난 청년실업과 급속한 노령화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공동체가 직면한 불가피한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런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시간: 14시 15분-15시 45분

충만한 생명과 생명의 존엄성(WS246)

주최: 에큐메니칼 장애인연대네트워크

장소: 컨벤션 홀 101호

프로그램 소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가장 바깥 모퉁이에서 살아간다. 신체적으로 격리되거나, 차별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장애인들은 흔히 사회의

최하층에 속한다. 그러나 보건, 교육,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장애인들은 더는 생존의 사각지대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이 워크숍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다.

복음과 대중문화(WS112)

주최: 연합복음선교회

장소: 컨벤션 홀 102호

프로그램 소개: 페이스북, 휴대전화, 대중음악, 축구, 텔레비전 드라마... 젊은 도시 신학자들의 질문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심오한 신학적 추론과 내가 그에 못지 않게 좋아하는 주변과 세대의 문화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 록 음악과 성경? 칵테일과 기도? 힙합 패션과 사회정의를 통합할 수 있을까?” 등 이다. 이 워크숍은 개인과 교회가 문화적 변화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고, 교회의 문화를 평가하고, 대중문화 속에서 교회의 존재 방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국제단체와 이 단체가 만든 자료를 소개한다.

지역 사회의 의견조사: 지역 사회의 슬픔을 말하다(WS120)

주최: 국제농촌교회연합회

장소: 컨벤션 홀 103호

프로그램 소개: 전 세계의 농촌사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착취적인 정부정책이나 기업 관행, 불공정한 자원획득 등). 국제농촌교회연합회의 목적은 농촌사회를 지원 네트워크로 결속시켜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의견조사”는 교회가 지역 사회를 함께 결속시켜 스스로의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농촌사회의 말없는 사람들의 슬픈 생활환경을 경험하고 예언자적·성경적 증언을 할 수 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WS123)

주최: 교회와 평화,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유럽중동분과, 국제화해협회

장소: 컨벤션 홀 104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평화교회 전통에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의 표현으로서 평화운동 사례를 조명한다. 또한 메노나이트, 퀘이커, 형제신앙공동체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살고 증명하는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 갈등 당사자들이 대화를 하게 만드는 노력, 갈등이 가라앉은 후 화해와 평화구축을 위한 사역, 유럽연합과 유엔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평화교회의 로비활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노력(WS125)

주최: 팔레스타인기독교단체인맹

장소: 컨벤션 홀 105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의 목적은 원수와 억압하는 자를 사랑하면서도 점령, 굴욕, 비인간화의 악에 대해서는 저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기독교 신학의 성찰을 심화하는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점령에 저항해온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성찰한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문서를 사례연구로 검토한다. 세계의 다른 지역의 카이로스 경험도 논의하고 협력 방법을 모색한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성 착취와 싸우다(WS127)

주최: 브리지스-동유럽 대화포럼

장소: 컨벤션 홀 106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성 착취 문제를 별도의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가난과 폭력과 연결시켜 살펴본다. 워크숍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성, 인종, 종교, 국적·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발칸지역의 현대 노예무역—마약과 무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정의로운 평화와 미국의 교회들(WS141)

주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증인사역과 형제교회

장소: 컨벤션 홀 107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에 대한 미국교회들의 응답을 살펴본다. WCC가 밝힌 미국 기독교의 주요 교파—정교회, 역사적인 아프리카계 아메리카 교파들, 아나뱃티스트, 주류 개신교—의 응답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교회들의 피드백과 아울러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정의로운 평화 사상, 미국교회의 공적 증언과 선교에 관하여 세계교회들과 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여러 지역이 서로 정의로운 평화운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북유럽 국가들의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해 프로세스(WS152)

주최: 노르웨이교회, 스웨덴교회, 핀란드복음루터교회

장소: 컨벤션 홀 108호

프로그램 소개: 사미(Sami)족은 노르웨이 북부, 핀란드, 러시아 북서부에 사는 원주민이다. 수세기 동안의 식민지배와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미족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상처를 입었고,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에는 구조적인 불의가 남아 있다. 최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루터교회들—사미족의 대다수가 이 교회의 교인이다—이 사미족과 관련된 화해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화해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 총회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화해의 지도원리로 삼을 수 있을까?

기후 난민: 기후정의는 어디에 있는가?(WS159)

주최: 태평양지역교회협의회, 브레드 포 더 월드

장소: 컨벤션 홀 109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기후정의의 배경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문제를 조명한다.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참가자들은 교회가 기후 난민과 함께할 때 사용한 방법과 여러 과제를 공유

하고 배울 수 있다.

생태적 채무에서 생태 정의로: 광산개발, 배상, 지구권(WS171)

주최: 남아프리카기독교협의회 경제정의연합회

장소: 컨벤션 홀 110호

프로그램 소개: 생태적 채무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조건과 정의를 약화시킨다. 대규모 광산개발은 남반구 지역, 원주민 공동체, 지구에 엄청난 생태적 채무를 발생시킨다. 이 워크숍은 세계 곳곳의 자원채취활동의 경제적·사회적·생태적 비용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한다. 아울러 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피해를 입은 공동체와 함께 유해한 자원채취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고, 지구권(Earth Rights)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아동을 위한 정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합법화된 폭력의 종식(WS178)

주최: 비폭력을 위한 교회연합회

장소: 컨벤션 홀 201호

프로그램 소개: 전 세계의 아동들은 가정, 학교 등 각기 다른 환경에서 체벌을 당한다. 일부 사람들은 체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 전통, 성경을 이용한다. 체벌은 많은 국가에서 합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감정적·영적 온전함을 파괴한다. 체벌은 핵심적인 종교적 가치인 자비,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 평등, 정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예수의 가르침과 아동에 대한 배려와도 상반된다. 이 워크숍에서는 세계의 체벌금지 추세를 조사하고, 참가자들의 은사와 경험을 이용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열쇠로서 아동에 대한 합법화된 폭력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평화활동가로서의 여성 종교지도자(WS192)

주최: 핀란드교회 구호기구

장소: 컨벤션 홀 205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에서는 라이베리아와 소말리아에서 평화활동가로 일했던 종교계 여성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여성 종교지도자들이 평화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사례들에서 어떤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여성 종교지도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피하면서 이러한 성공을 배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여성 종교인들이 벌인 평화활동의 경험을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회와 다른 종교 단체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여성 종교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평화활동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며, 아울러 더 큰 결과를 위해 세계적 차원의 연합과 협력관계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한다.

노인층을 위한 목회적 돌봄: 평화와 개발을 위한 자립(WS200)

주최: 도시와 농촌선교

장소: 컨벤션 홀 203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종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특성을 포함한다. 세대 간 접근방법, 인권, 노인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노인 목회사역을 통해 기회의 평등, 평화, 개발,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 우호적인 사회를 증진하고자 한다.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하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WS202)

주최: 말라가시루터교회

장소: 컨벤션 홀 204호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말라가시루터교회의 전반적인 계획(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하라)을 알아본다. 이 교회는 지역교회 회중을 일차적인 개발 실행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달란트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 평화와 정의를 심는 역할을 한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WS213)

주최: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주민 에큐메니칼위원회

장소: 컨벤션 홀 206호

프로그램 소개: 우리는 참가자들을 호주 원주민들의 여정에 초대한다. 이 흥미진진한 워크숍은 원주민들이 하향식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줄 것이

다. 또한 삶의 사회적·정치적·영적 요소들을 포용하는 호주 원주민들의 통진적인 접근방식을 살펴본다.

종교 간 대화: 새로운 에큐메니즘?(WS224)

주최: 영국과 아일랜드교회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207호

프로그램 소개: 갈등하는 세계에는 종교 간 대화가 긴급하다. 많은 경우 이런 대화는 “문명의 충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소수파이거나 종교가 아주 다양한 사회에서 산다. 이 워크숍은 종교 간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탐구한다.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시적 일치를 기원하고 추구하는 기독교 에큐메니즘보다 우선적인가?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것이 달성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는가? 이제 운동의 강조점을 다종교적 상황으로 이동시켜야 할 때인가? 아니면 종교 간 대화를 위한 노력이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한” 기독교적 일치라는 소명에 해당하는가?

선교, 이주, 다문화사역(WS229)

주최: 캐나다연합교회/국제 다문화사역 에큐메니칼연합회

장소: 컨벤션 홀 208호

프로그램 소개: 오늘날 사람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다. 이주는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에 발생한다. 사람들은 모든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사람들의 이동은 선교와 지역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교회는 어떻게 다문화나 이종 문화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교회는 변화하는 세계의 현실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이 워크숍에서는 선교와 복음전도에 관한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의 새로운 성명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를 참고하면서, 교회가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사는 한 방식으로서 다문화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상황에서 비롯된 신학적 통찰, 자원과 도구들을 공유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WS216)

주최: 일본교회협의회

장소: 비즈니스 홀

프로그램 소개: 일본의 1947년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헌법 9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 9조에는 “일본인들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1항).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이외 다른 전쟁능력을 결코 유지하지 않는다(2항)”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9조에 대한 아시아 종교 간 회의는 강의, 증언, 기도, 대화, 신앙에 기초한 선언을 통해 일본 재무장을 향한 국내외의 압력에 맞서 헌법 9조의 내용을 지키고, 그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워크숍에서는 이 분야의 활동성과를 나눈다.

한국 여성과 정의, 평화, 생명운동(WS251)

주최: 정의·평화·생명을 위한 여성협의회

장소: 오디토리움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한국 여성들의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세계 각국의 교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공유한 미래의 방향과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존엄과 정의(WS255)

주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대연회실

프로그램 소개: 세계 곳곳의 갈등 현장에서 여성들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다. 역사는 특히 전시에 여성에 대한 폭행이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워크숍에서는 일본군에 징집된 위안부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 다음 범위를 확대하여 전시 상황에서 자행된 범죄행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고 정의, 치유, 화해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평화와 정의를 향한 소수종파의 투쟁(WS261)

주최: 남아시아교회협의회

장소: 컨벤션 홀 202호

프로그램 소개: 남아시아지역(파키스탄, 인도,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있는 각국의 교회협의회는 다른 신앙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소수종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왔다. 워크숍은 남아시아지역의 교회협의회가 각국에서 소수종파의 투쟁 가운데에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수행해온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법적인 문서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 미국 이민자 청년운동(WS271)

주최: 미국진보침례교회협의회

장소: 마당 회의실 1

프로그램 소개: 이 워크숍은 이민자 청년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권운동이 미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200만 명 이상의 이민자 학생과 청소년들이 공식적인 신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으로 보내졌고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 투표권, 여행, 노동 허가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강제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민자 청년운동은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시민 불복종운동, 단식투쟁, 미국 상원에서의 농성을 벌였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었다.